

"내(하나님)가 그대(무함마드)를 보냄은
단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꾸란 21(안비야)장 107절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삶을 통해 소개하는 이슬람과 이슬람문명



제 3 판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

예언자 무함마드 그분에게 하나님께 평화와 깃들기름의 삶을 통해 소개하는 이슬람과 이슬람문화

The Prophet of Islam Muhammad

Biography and Pictorial Guide to the Moral Bases of the Islamic Civilization

초판 1쇄 발행 | 2015년 6월 12일
초판 2쇄 발행 | 2017년 5월 27일
옮긴이 | 장 후세인
발행인 | 젠나무민북스
등록일 | 2012년 6월 18일
등록번호 | 제2012-000058호
주소 | 0101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31 (우이동)
전화 | (02) 999 1453
전자우편 | jmbooks@hanmail.net
홈페이지 | www.jannahmuminbooks.co.kr
가격 | 9,000원
ISBN | 978-603-8229-13-2



www.guidetoislam.com

Copyright © Osoul Global Center, 2017

이 책의 저작권자는 위와 같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도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은 다음의 이메일을 통해 주십시오.

osoul@rabwah.com

muhammadpocketguide@gmail.com

www.guidetoislam.com

jmbooks@hanmail.net

ISBN: 978-603-8229-13-2 L.D. No.: 139/645

“나와 기존 예언자들과의 관계는

누군가가 지은 저택과 같노라.

그는 저택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완벽히 하였지만,

구석의 벽돌 하나만을 남겨두고 채우지 않았노라.

사람들은 저택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이 부분을 벽돌로 채우면 좋으련만’하고 아쉬움을 표하니,

내가 바로 그 벽돌이며,

나는 모든 예언자들의 봉인이라.”

무함마드 그분에게 하나님께 평화와 깃들기름

부카리가 전함 4734, 4735

일러두기

알라(=하나님) :

이슬람에서 믿는 신은 어떤 특별한 신이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에서 믿는 신과 같은 신입니다. 단지 언어에 따라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란 호칭을 쓰고 미국에서는 ‘God’라는 호칭을 사용하듯이 각각의 나라와 언어에 따라 하나님을 칭하는 명칭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아랍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칭할 때 ‘알라’라고 말합니다.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성서)을 본다면 아랍어로 ‘알라’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원적 의미로 본 ‘알라(ALLAH)’는 정관사 ‘알(AL)’과 ‘신’이란 뜻의 ‘일라(ILAH)’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ALLAH = AL + ILAH

한국에서 사용되는 ‘알라신’이라는 호칭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본서에서는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라”라는 호칭 대신에 “하나님”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SAW :

아랍어 ‘쌀랄라후 알라이히 와쌀람 (Sallallahu Alaihi Wasallam)’의 약자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SAW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분의 이름 뒤에 이 말을 덧붙이는데 그 뜻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입니다.

이렇게 이름 뒤에 예언자를 존경하는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에게 꾸란 33장 56절을 통해서 예언자에 대한 존경과 경의로 그렇게 하기를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AS :

아랍어 ‘알라이히 쌀람 (Alaihis Salam)’의 약자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외에 다른 모든 예언자들의 이름 뒤에 이 말을 덧붙이는데 그 뜻은 ‘평화가 그분에게’입니다.

*** 본서에는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소중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찬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일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셨고 인간에게 청각과 시각과 사고력을 부여하시어 인간을 지상의 대리자로서 영위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지구상에 그분의 종교(율법)를 확립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짧고 임시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세의 삶이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한 시험이자 준비를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세에서 선을 행한 자는 심판의 날 그에 대한 보상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는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인류에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우주 만물의 창조와 삶의 의미에 대해 알리시고 그분의 길로 인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언자들 중에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와 무함마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마지막 계시인 꾸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무함마드를 그분의 마지막 예언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모범적인 품성은 그분을 마치 '살아 있는 꾸란'으로 비유할 정도이며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증명하고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

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진실하고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극심한 재앙과 온갖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직면한 요즈음 세상에서 전문가들은 이 총체적 난국의 해결방법에 대해 열심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수울 글로벌 센터(Osoul Global Center)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분의 교우들과 교우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를 믿고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전세계에 정의와 자비와 안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분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진실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예언자 무함마드^{SAW}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꾸란 구절에 언급되었듯이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내(하나님)가 그대(무함마드)를 보냈은
 단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꾸란 21장 107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수울 글로벌 센터(Osoul Global Center)



아래 기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Al Madinah Research and Studies Center, Madinah –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메디나 연구조사센터

Ministry of Awqaf (Endowments) and Islamic Affairs, Kuwait
 쿠웨이트 이슬람종교부

Islamic Affairs and Charitable Activities Department, Dubai – UAE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종교부 & 자선활동부

Ministry of Awqaf and Islamic Affairs, Jordan
 요르단 종교부

Ahmed Al-Fateh Islamic Center, Bahrain
 바흐레인, 아흐마드 알-파타르 이슬람 센터

Malaysia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 JAKIM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Fanar, Islamic Cultural Center – Qatar
 카타르, 파나르 이슬람문화원

목차

Contents

1. 헌사	14	7. 인권	154
2. 품성	20	· 자유, 정의, 보호	
3. 생애	26	· ‘명예살인’과 ‘보복’의 금지	
4. 예언자 직분	64	· 예언자 무함마드 ^{SAW} 는 폭력을 비난했다	
· 예언자 무함마드와 계시		8. 환경	168
· 이슬람의 메시지		· 예언자 무함마드 ^{SAW} 의 ‘환경’에 대한 가르침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		· 천연자원을 사용할 평등권	
· 한 분이신 하나님, 단 하나의 메시지		·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	
예언자 무함마드 ^{SAW} 와 예언자 아브라함 ^{AS}		9. 꾸란의 기적	178
예언자 무함마드 ^{SAW} 와 예언자 모세 ^{AS}		· 하나님의 예언자 무함마드 ^{SAW} 에게 내린 기적	
예언자 무함마드 ^{SAW} 와 예언자 예수 ^{AS}		· 꾸란에 언급된 주요 과학적 사실들	
5. 이슬람문명, 가치관, 예절	108	10.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말씀	192
자기개발과 리더십		· 음식과 약에 관한 예언자 무함마드 ^{SAW} 의 가르침	
사회적 가치		11. 맺는 말	206
이슬람의 예절		12. 이슬람 미술, 서예, 건축	218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와 평화로운 공존		· 이슬람 미술과 서예	
6. 여성	138	· 이슬람 건축과 세계의 유명한 이슬람 관광지	
· 여성의 권리		참고문헌	270
· 예언자 무함마드 ^{SAW} 와 일부다처			



 이것은 조형 미술 방식으로 쓰인 아랍어로서 “무함마드”란 단어이다. 윗부분은 돔이 있는 이슬람성원 모양이다.

돔(모양)은 “무함마드”란 단어의 “ḥ” 글자이다. 이슬람성원 모양의 아랫부분에는 “라수-룰라 ” 즉, “하나님의 사도”라는 문장이 쓰여 있다.

또 다른 아랍어 서예 방식으로 쓰인 “무함마드”라는 단어가 육각형에 6번 표현되었다.

쿠웨이트 출신 서예가 파르드 알-알리의 작품

아랍어로 “무함마드”란 “칭찬받은 자”를 뜻한다.
사람들은 그분의 삶과 관행에 대해 극찬한다.
실로, 그분은 끊임없는 극찬을 받을 만한 분이다.



존 아데어

John Adair

영국의 리더십 전문가.

"무함마드의 지도력(The Leadership of Muhammad)"의 저자.
이탈리아의 토리노시에 소재한 유엔 참모양성학교 리더십과 학과장.

"이슬람사상에서 본보기가 되는 지도자들은 고귀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선견지명과 영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스스로를 국민에게 바쳤습니다. 이 장들을 읽어볼 때 무함마드가 이러한 이상에 얼마나 알맞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본서에서 주장하는 바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에서 수없이 드러난 이상적인 리더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의 성격과 실행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와 똑같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몽고메리 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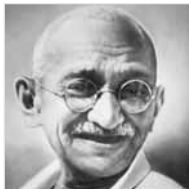
William Montgomery Watt

(1909 - 2006) 스코틀랜드 출신 사회학자이자 에든버러 대학교

아랍어과, 이슬람학과 명예교수.

"무함마드의 메카 (Muhammad at Mecca)"의 저자.
"무함마드의 메카", 옥스퍼드, 1953년, 52쪽에서

"믿음의 대가로 그 어떠한 박해도 헤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던 그와, 그를 믿고 따르던 자들의 높은 인격, 그가 최종적으로 거둔 위대한 결과물, 이 모든 것은 그(예언자 무함마드)가 정직하고 성실한 자였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 중 무함마드 만큼 서구에서 그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자도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Mahatma Gandhi

(1869 - 1948) 인도 독립운동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반박의 여지가 없는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얻은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만났으면 합니다. 그 때의 삶의 책략 안에 이슬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칼이 아니었음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단순함, 겸손하여 항상 표면에 나서지 않는 것, 약속을 꼼꼼하게 지키는 태도, 그의 교우들과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 용맹, 하나님과 책임이 있는 임무에 대한 절대적 믿음 때문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기(傳記) (제) 2권의 마지막 쪽을 넘겼을 때 나는 이 위대한 생애에 대하여 더 이상 읽을 것이 남아 있지 않아 슬펐습니다.”



알퐁스 드 라마르틴

Alphonse de Lamartine

(1790 - 1869)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작가, 정치가.

“터키의 역사(Histoire De La Turquie)”의 저자.

터키의 역사 제2권 276-277쪽에서

“사색가, 웅변가, 지도자, 법률가, 전사, 사상의 정복자, 이성적 신조, 상상 없는 숭배 주창자, 그분은 무함마드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기준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함마드 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윌리엄 듀런트

William Durant

(1885-1981) 미국인 사학자, 철학자.

“문명 이야기(The Story of Civilization)”의 저자.

“문명 이야기” 제4권 제4장 25쪽에서

“그(무함마드)의 “칭찬받은 자” 또는 “칭찬할 가치를 지닌 자”라는 뜻의 이름은 성경의 일부분에 언급된 “도래가 예견된 사람”이란 구절과 유사합니다. 무함마드는 글을 쓸 줄 몰라 서기들이 대신하였습니다. 그가 문맹이라는 사실은 아랍어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창한 책(꾸란)을 구성하는 것(그에게 계시된 꾸란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또한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 드물게 이를 수 있는 국민을 관리하는 능력의 소유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석: 서기(書記)란 문서나 기록 따위를 맡아보는 사람을 뜻함. 윌리엄 듀런트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꾸란을 “구성(composing)”하였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꾸란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전달한 성서이기 때문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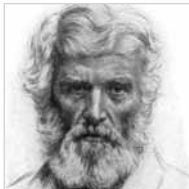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독일 극작가 및 대시인.

Noten und Abhandlungen zum Weststlichen Dvan,

WA I, 7, 32쪽에서

“그(무함마드)는 시인이 아니라 예언자이기 때문에 꾸란은 신의 율법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꾸란은 교육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책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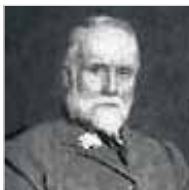
토머스 칼라일

Thomas Carlyle

(1795 - 1881) 스코틀랜드 출신 사학자이자 철학자.
 "영웅숭배론(Heroes and Hero Worship and the Heroic in History)"의 저자.

“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서로 다투는 부족들을 하나로 융합시켰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베두인족 Bedouins: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아랍인 사이에서 방황하다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문명화된 국가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주석: 토머스 칼라일은 그의 저서에서 '예언자로 나타난 영웅'이라는 장의 제목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특별한 자리를 부여했다.



레지널드 보스워스 스미스 목사

Reginald Bosworth Smith

(1839-1908) 영국 출신 교사이자 저자.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주의(Mohammad and Mohammedanism)"의 저자.
 무함마드와 무함마드주의, 런던, 1874년, 92쪽에서

“그는 그 안에 시저와 교황의 성격을 함께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황으로서의 허례허식이 없는 교황이었으며, 시저의 전설이 없는 시저였습니다. 뛰어난 군대 없이도, 호위병 한 명 없이도, 궁전 한 채 없이도, 고정 수익 없이도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신의 질서에 의해 올바르게 통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그는 바로 무함마드입니다. 그는 권력의 도구 없이도 권력의 지지 없이도 모든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력의 화려함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모두, 언제나 소박함이 함께 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Leo Tolstoy

(1828 - 1910)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이자 소설가.
 "전쟁과 평화"의 저자.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회구조를 깊이 개선하는 훌륭한 개혁가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노력은 한 공동체를 진리의 빛에 이르게 하였고 그들을 더욱 평온과 평화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살생을 방지했는데 이는 이슬람 이전의 아랍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발전과 문명의 문을 널리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대단한 행위입니다. 그는 모든 감탄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리스 뷁까이유

Maurice Bucaille

(1920 - 1998) 프랑스 출신 의학박사이자 위장병학 전문가.
 이집트학 프랑스 연합회 회원,
 "성경과 꾸란과 과학(The Bible, The Qur'an and Science)"의 저자.

“이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理性)의 능력을 베풀어주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기대됩니다. 그 당시 지식 수준을 고려해볼 때 무함마드가 생존해 있던 시절 누군가가 이러한 진술을 임의로 기재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대과학은 꾸란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이 둘 사이에 협정이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품성에 대한 묘사: 그분의 성격과 품성은 그분의 교우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위는 스페인 출신 서예학자 누리아 가르시아 마실(Nuria Garcia Masip)의 작품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품성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SAW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가족들과 교우들에 의해 그분에 대한 묘사가 다소 생생히 기록되었기에 역사적 인물로서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거의 모든 것이 후세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것이다.

외모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랍인으로서 고귀한 혈통을 가진 자였으며 윤기가 흐르는 밝은 혈색이었다. 키는 평균보다 조금 더 컸으며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았다. 그의 배는 가슴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발걸음은 시원스러웠고 걸을 때는 마치 아래로 내려 걷는 것 같았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교우들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분은 잘 생긴 얼굴에 이마는 넓었고 코는 곧았습니다. 검정색 눈동자에 촉촉하고 긴 속눈썹, 가지런한 치아와 상냥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교우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보름밤의 밝은 달처럼 빛났다고 표현했다. 그는 큰소리로 웃지 않았다. 그의 웃음은 대부분이 미소였다. 미소 지을 때는 하얀색 우박과 같은 치아가 드러났다. 항상 유쾌하였고 상대방은 그에게서 친밀감을 느꼈다.

성격

한결같은 쾌활함과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녔으며 결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거나 지나친 칭찬을 하지도 않았다.



말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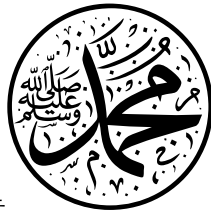
쓸데없는 말은 피했으며 문맥은 올바르고 명확했으며 불필요한 말이나 반복되는 말이 없었다. 적은 단어로 분명하고 간결하게 문장을 구사하였다. 표현력이 완벽했기에 과도한 말이나 비정상적으로 생략한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중요한 말을 강조하고자 할 때 몸짓으로 세 번이나 반복하곤 하였으며 말을 할 경우 그 말로써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만 말을 하였다. 그가 교우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비록 그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 올바른 권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말다툼을 삼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주변에 집 한 채를, 그리고 비록 그것이 농담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삼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중앙에 집 한 채를, 그리고 훌륭한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집 한 채를 보증하노라.” 아부 다우드가 전함 (Sahih Abu Dawood, 4974/4800)

감정

불같은 성격을 갖지 않았으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다. 현세의 일이나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화를 내거나 특히 자신의 권리추구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단호한 태도로 크게 화를 냈다. 또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도 화를 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여성이나 아랫사람에게 소리를 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항상 용서를 택했다.



인간관계

늘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였고 상대가 손을 빼내지 않는 한 자신의 손을 먼저 빼내지 않았다.

누가 그와 사귀거나 함께 한다면 금세 친해지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친절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옆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운 태도로 대했으며 무시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는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여 바라보았다. 만일 누군가 예언자를 부르려면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까지 그 방향으로 향했다.



모임에 참석할 때면 모임이 형성된 바로 그 장소에 앉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각각의 사람에게 걸맞은 배려를 하였기에, 그와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은 모두 자신보다 더 배려 받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는 한 곳을 지정하여 앉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 곳만 지정하여 앉는 행위를 금하였다. 상대방을 공정하게 대했으며 신앙심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겸손하게 행동하였다.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말을 끊는 법이 없었으며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며 기다렸다.



자신과 그의 가족이 회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가족 중 어느 누구에게도 회사를 모으는 임무를 주지 않았다.

흙으로 만든 집에서 살았으며 집의 천장은 대추야자 나무 잎과 낙타가죽으로 덮여 있었다.

압둘라 본 압바스가 전하는 하디스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나는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쉬었다가 떠나는 나그네일 뿐 나도 세상도 여기에 (계속)없는데, 나에게 혹은 세상에 계속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카리가 전함 (2/666- 2788, Musnad Ahmad, Narrated by Abdullah bin Abbas)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타고 다니던 하얀 노새 한 마리 그리고 자신을 베풀기 위해 남겨 두었던 조그마한 땅을 제외하고는 돈이나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았다.

생활양식

낭비도 하지 않고 인색하지도 않았으며 모든 것에서 적당하였다. 음식의 맛에 대해 불평하지도 크게 칭찬하지도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시간을 셋으로 나누곤 하였다. 즉, 삼분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 삼분의 일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삼분의 일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바닥을 닦는 일이나 옷과 신발을 수선하는 일 그리고 염소 젖을 짜는 등등의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지나치지 않게 옷을 잘 입고 향수를 발랐다.

새벽예배 후 성원에 앉아 해가 뜰 때까지 꾸란을 읽고 하나님을 염원하였다. 또한 한밤중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집
(기록에 의한 상상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성원
(기록에 의한 상상도)



연보

이름	무함마드 ﷺ
아버지 이름	압둘 무말립의 아들 '압둘라' (그의 혈통은 예언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문	바누 하심에 속함 (바누 하심: 아라비아반도의 유명한 귀족 쿠라이쉬(Quraish) 부족의 한 일가)
출생	대략 서기 570년 4월 20일-22일 ¹
출생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사망	서기 632년 6월 6일 (63세를 일기로 타계)
매장지	메디나 (메카에서 북쪽으로 약450km)



어린 시절, 청년기

출생 ~ 2세	외아들이자 유복자로 태어남 베두인 족의 전통에 따라 유목민의 유모「할리마」의 보살핌으로 성장
2 ~ 6세	어머니 「아미나」가 576년에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음
6 ~ 8세	조부 「압둘 무탈립(Abdul Muttalib)」 밑에서 성장
8 ~ 25세	10명의 자녀를 둔 숙부 「아부 탈립(Abu Talib)」 밑에서 성장

생전 활동

교육

예언자 무함마드_{SAW}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이었으며 교육은 커녕 배운 사람과 함께할 기회도 없었다. 그는 메카에서만 살았고 다른 문화, 문명을 탐구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꾸란을 썼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꾸란을 썼거나 꾸란의 저자라고 믿지 않는다. 그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중 단 한 글자라도 빠뜨리거나 추가 없이 그대로 전달했다.

꾸란의 언어는 문맹이었던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는 전혀 달랐다.



따라서 꾸란은 예언자의 말이 전혀 섞이지 않은 것이다. 예언자의 삶의 방식과 언행 그리고 꾸란의 해석 등을 “순나(Sunnah: 예언자 무함마드_{SAW}의 관행)”라고 한다.

예언자의 순나는 꾸란과 함께 이슬람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으로, 정직하고 신앙심 깊은 자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 왔다.

어린 시절 ~ 20대 중반	양치기와 무역. 숙부로부터 무역을 배워 대상이 됨. 숙부 아부 탈립과 함께 12살 때 최초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로 향하는 교역 여행길에 동반.
20대 중반 ~ 40세	메카의 거상이었던 「카디자(Khadijah)」의 무역 대리인으로 활약.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앗-싸디끄 알-아민”, 즉 ‘정직하고 신뢰가 깊은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그의 정직함과 고상한 인품 때문이었다.
40 ~ 63세	40세에 이르렀을 때 (서기 610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자임을 자각. 그 후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창조주의 유일성과 사회정의와 평화, 조화와 안녕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꾸란)을 가르쳤다.



결혼

25년 동안 오직 한 여자와 결혼생활: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사드 가문의 쿠와이리드(Khuwaylid)의 딸 카디자와 결혼했다.

카디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미망인이었고 무함마드^{SAW}는 카디자의 고용인이었다. 카디자는 2년 간 무함마드^{SAW}를 지켜보며 정직과 신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카디자는 제3자를 통해 무함마드^{SAW}에게 청혼을 했다.

행복한 결혼생활: 카디자의 나이는 무함마드^{SAW}보다 15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비슷한 사회층에 속해 있었다.

그들 사이의 나이 차이는 행복한 결혼생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25년 동안 성실한 남편으로 그녀 곁에 있었고 카디자 또한 그를 성심성의껏 내조하였다. 카디자는 619년에 65세를 일기로 사망했고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후에 재혼했다.

여섯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가정적인 남편:

무함마드와 카디자는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갔고 그들 사이에 딸 넷(자이납 Zaynab, 루꾸이야 Ruqayya, 움꿀숨 UmKulthoum, 파티마 Fatima)과 아들 둘(알-까심 Al-Qassim, 압둘라 Abdullah)이 있었으나 애석하게도 두 아들을 어린 나이(알-까심은 3세, 압둘라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카디자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충신했다.

그는 여러 차례 그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녀의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이듯 그녀(카디자)의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은 ‘카디자’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는 4세)에 잃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안일을 자청하고 자신의 옷을 손수 바느질하고 아이를 돌보았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자녀들, 부인들의 일부, 친척과 교우 일부는 메디나, 예언자의 성원 옆에 있는 바끼(Baqee)묘지에 안치되어 있음.

메카의 알-마알라(Al-Ma'ala)묘지 예언자의 부인, 카디자의 묘소

23년 만에 완성한 임무

610년

계시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첫 계시를 받음으로? 예언자직을 부여받아 이슬람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의 임무는 강한 신앙과 헌신 그리고 정직을 필요로 했다.



610 - 612년

핵심 무슬림 형성: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가족과 친구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예언자직을 부여 받은 첫 3년 간 130여 명이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이슬람 전파에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이들 핵심 무슬림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

613 - 615년



무함마드^{SAW}의 전도에 대한 반발: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그의 교우들은 공개적으로 이슬람 전도를 시작했다. 메카 족장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정직하고 신뢰가 깊은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슬람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며 예언자를 시인, 점쟁이, 제정신

이 아닌 사람이라고 불려댔다.

메카 족장들의 유혹과 협박: 메카 족장들은 무함마드^{SAW}가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 유혹(재산, 인정 받는 계급, 여자 등)을, 때로는 협박까지 했다. 또한 사람들이 무함마드^{SAW}의 말을 듣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무슬림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재산도 지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으며 불신자들은 무슬림에게 고문 등 육체적 고통을 가하기도 했다. 100명 가량의 무슬림은 메카를 떠나 이웃한 기독교 국가 아비시니아(현 제의 에티오피아)로 피난처를 찾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무함마드는 그의 교우 중 일부를 아비시니아로 보냄: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신앙의 집회 장소이자 교육 장소였던 아르قام(Arqam)의 집에서 무슬림들에게 꾸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에 이슬람의 도덕과 가치, 책임과 헌신을 불어넣었다.

그는 교우들이 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독교 왕이 통치하는 아비시니아로 피난하도록 했다.



영향력있는 두 명의 남자가 이슬람에 입교하다: 장사(壯士)이자 존경받는 메카 출신 두 사람, 우마르 빈 알-카타브(Omar Bin Al-Khattab)와 함자 빈 압둘 무딸립(무함마드^{SAW}의 삼촌)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이 일은 무슬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함자는 625년에 우후드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강력한 보호자이자 지지자였다. 우마르는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사망 후 3년 뒤 두 번째 칼리파가 되

어 이슬람국가를 11년 동안 통치하였다.

616- 618년

거부 당하는 예언자 무함마드^{SAW}: 메카 족장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그의 추종자들을 강제로 제한 구역 내에서만 살게 하고, 그들에게만 식량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는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그의 추종자들은 큰 고난을 겪었으며 그들의 인내심과 신앙, 진리를 향한 헌신을 확인하는 시기였다.

619- 620년

슬픔의 해: 메카 족장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지쳐 결국 박해는 점차 약해져 갔고 식량 금지령도 폐지되었다. 같은 해에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아내 카디자와 삼촌 아부 딸립이 세상을 떠났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카에서 희망을 잃고 메카 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타이프(Ta'if)로 갔지만 적의에 부딪혔다.³ 뿐만 아니라 그는 20개 이상의 아랍 부족을 만나 그들에게 이슬람을 설명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620- 622년

희망의 빛: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성지순례 기간에 야스립(Yathrib: 메카의 북쪽으로 약 450km 거리. 현재의 메디나)에서 온 여섯 명에게 이슬람을 소개했다. 그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야스립에 돌아가서 그들의 부족과 다른 부족사람에게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만나기를 권했다. 권유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해 성지순례 때 메카로 가서 하나님의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만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무슬림들의 맹세

야스립 출신 여섯 명은 다음 해(621년)에 다른 여섯 명과 함께 메카로 갔다.⁴ 그들은 무함마드^{SAW}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 (1)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는다
- (2) 도둑질하지 않는다
- (3) 간통하지 않는다
- (4) 살해하지 않는다
- (5) 이웃을 중상모략하지 않는다
- (6)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불복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야스립으로 돌아가 족장들과 부족사람을 이슬람으로 초대했다. 그리하여 다음해(622년) 메카 성지순례 때는 70명의 남성들과 2명의 여성들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앞에서 맹세했다.



야카바(Aqaba) 또는 알-바야(맹약) 이슬람성원

메카의 북쪽 450km에 새로운 무슬림공동체 구성: 야스립 주요 두 부족(아우스(Aws) 부족, 하즈라즈(Khazraj) 부족)의 족장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그 후 그들의 부족사람들도 무슬림이 되었다. 그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요청했다.

622년

메카 족장들의 예언자 무함마드^{SAW} 살해음모와 야스립(메디나)으로의 이주: 메카의 모든 상황은 악화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카의 무슬림들에게⁵ 야스립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그들과 함께 예언자 무함마드^{SAW}도 622년 9월에 야스립으로 이주하였다.⁶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이주는 이슬람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써 야스립에서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탄생했으며, 새롭고 빛나는 정의사회의 질서가 확립되었다.

623-624년

야스립 최고 수장이 되다: 야스립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함께 사는 도시였다. 2개의 주요 아랍 부족과 3개의 작은 유대 부족이 살던 야스립에는 아랍인이 유대인보다 많았으며 통치권도 행사하고 있었다. 야스립 사람 대부분의 합의로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평화롭게 야스립의 수장이 되었다.



야스립의 이름을 바꾸다: “메디나”는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지은 야스립의 새로운 이름이다. 야스립은 메카 무슬림들의 이주 후, 아랍인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조국이 되었다.

야스립에 거주하는 유대인 부족들과 이슬람을 선택하지 않은 아랍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야스립을 ‘이슬람의 도시’로 부르지는 않았다. 대신에 야스립을 “알-메디나” 즉, 모든 거주자가 동등한 시민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도시”라고 이름 지었다.



메디나에서 평화와 인권을 세우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디나 사람들에게 했던 첫 공개 연설에서 사회적 조화와 통합의 증진을 함축적으로 전했다.

“오, 사람들아! 너희 상호 간에 이슬람식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다른 이가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흠족하게 하고 천국에 갈 것이니라.”
(Ibn Majah, 4331) and (Tirmidhi, 5842)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위와 같은 행위가 하나님을 흠족하게 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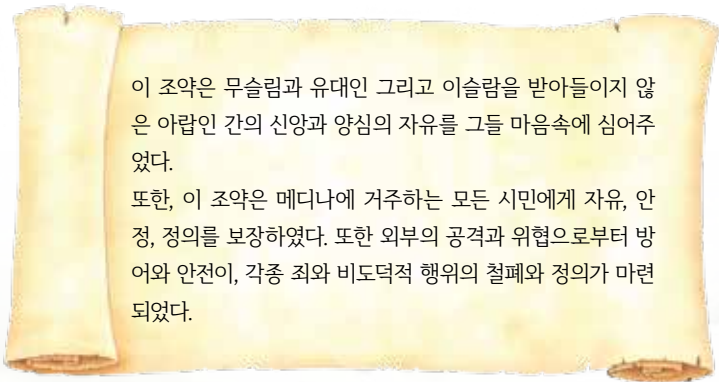


623-624년

메디나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최초의 인권' & '자유조약' 체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언자가 유대인들 중에서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 대부분이 무함마드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디나의 수장으로) 모든 아랍인과 유대인 부족이 합의한 "인권과 자유의 헌법과 헌장"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랍인 간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또한, 이 조약은 메디나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자유, 안정, 정의를 보장하였다. 또한 외부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방어와 안전이, 각종 죄와 비도덕적 행위의 철폐와 정의가 마련되었다.

624년

불가피한 바드르(Badr) 전투:

무슬림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자, 메카 족장들은 무슬림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아부 수피얀(Abu-Sufyan)이 이끄는 무역 대상이 메디나 근처를 지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무슬림은 메카에서 빼앗긴 재산에 대한 대가로 무역 대상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313 명의 무슬림들이 이 임무를 맡게 되었다.

무슬림들의 공격 정보를 입수한 아부 수피얀은 이동경로를 바꾸었고 메카인들도 950 명으로 군대를 구성하여 무슬림 군대와 싸우도록 했다. 무슬림 군대는 장비뿐만 아니라 전투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다.

그런데 메카 족장들에 대항한 그 첫 전투에서 무슬림들은 빛나는 완승을 거두었고 무슬림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메카의 족장 일부는 전사했다.



625년

메카의 족장들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그의 교우들을 공격한 우후드(Uhud) 전투: 메카 족장들과 일부 아랍 부족이 바드르 전투에 대한 보복과 아라비아반도 주인의 자리를 잃을 수 있음에 우려해 3,000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메디나 북쪽 우후드 산에서 총공격을 가해왔다.



우후드 소재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무슬림들은 이 전투에서 패배했고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은 반면,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사랑하는 삼촌 함자와 일부 교우가 전사했다.



우후드 묘지에 있는 우후드 전투의 순교자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626년

메카와 다른 부족 연합군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교우들을 공격한 참호 전투: 이전 전투에서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죽이지 못했기에 메카 족장들은 일부 아랍 부족, 유대인 부족과 연대해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무슬림 공동체를 파괴할 계획을 세운다.

10,000 명이 넘는 군대가 메디나를 향해 진격해왔고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페르시아인 '살만(Salman)'의 충고에 따라 방어막으로 메디나의 북쪽에 (4.6m 넓이 5.5km 길이)참호를 파기로 결정한다.

한 달 넘게 무슬림의 방어막을 뚫지 못하자, 이교도 군대는 참을성을 잃어갔고 점차 동맹군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내부 갈등과 혹독한 기상 상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막사를 거두고 군대를 철수했다. 이는 이슬람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이후 메디나는 침략 당하지 않았다.

627년

“후다이비야(Hudaybiya) 협정”, 10년간 휴전:

참호 전투 1년 후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평화를 위해 우므라(Umrah, 소순례. 메카에 있는 카아바를 방문하고 종교 의식을 행함)를 계획한다. 종교 의식을 행하기 위해 메카를 방문하는 것은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였고 이는 메카인의 관리 하에 있었다.

메카 족장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1,400명의 민간인들과 함께 메디나에서 메카로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놀랐다.

10년간
휴전

여러 협상 후, 메카 족장들과 예언자 무함마드^{SAW} 사이에 10년 간 휴전 협정이 맺어졌고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교우들은 다음 해(628년)에 메카를 방문한다는 조건으로 메디나로 돌아갔다. 많은 무슬림들은 협정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슬림들보다 메카 사람을 죽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이 협정을 승리로 선언했다.



628- 629년

휴전 기간 동안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하나님의 말씀

을 아라비아 안팎에 전달: 휴전은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어떤 방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이슬람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라비아반도에 있는 다른 아랍 부족에게 이슬람을 소개하는 대표단을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왕이나 통치자

그리고 페르시아, 비잔틴, 이집트 같은 초강대국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서신을 보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화의 시기에 많은 비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결국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630년

‘평화롭게’ 메카를 정복하다: 약 2년 뒤 메카인들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무슬림들과 동맹을 맺은 부족을 공격하여 20명을 살해했다. 그 후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메카로 진격했다. 이는 정복 역사상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 이유는 메카의 정복이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로운 정복이었기 때문이다.

무슬림군은 메카에 입성하기 전, 메카인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무슬림군대가 메카로 들어가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카인에게 하나님의 유일함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어졌음을 연설했다.



그런 후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자비로운 형제이자 자비로운 형제의 아들
 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오직 선만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범적인 관대함: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지난 21년 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슬람의 진리를 비웃었던 메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며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가시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소.” 그는 그들 모두를 용서함으로써 전 인류와 모든 세대에 가장 완벽한 관용과 아량의 본보기를 보였다. 이 같은 관대함이 바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한 이유이다. (Sunan Al-Bayhaqi, 9/118, 18342, 18343)

630 - 631년

아랍부족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임: 평화로운 메카 정복 후, 아라비아 전역에서 대표단이 찾아와 이슬람을 배우게 되었다. 대다수 아랍부족은 서둘러 이슬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와진(Hawazen) 부족은 자신들의 세력을 믿고 저항하였으나 후나인(Hunayn) 전투에서 패배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교우들을 아라비아반도 여러 지역에 이슬람 선생으로 파견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메카로 들어간 주요 목적은 카아바를 정화시키는 것이었다. 즉, 그는 오랫동안 아랍인들이 머리 숙여 숭배해온 거짓 우상들을 모두 부수었다. 마침내 카아바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숭배하기 위한 순수한 장소가 되었다.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고별연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임무는 완성되어 그의 사명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성지순례를 수행하며 10만 명 이상의 무슬림 순례객 앞에서 생애 마지막 설교를 했다. 설교를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하나님의 유일함에 대한 믿음, 생명의 신성함, 사유 재산의 소중함, 인종 평등, 공정의 원칙, 여성의 권리 및 도덕성 등의 가르침을 전달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사망

632년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디나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에게는 약간의 소지품만 남아 있었다. 세상을 전부 가졌음에도 재산은 1 디나르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의 영혼은 마치 처음 전해졌을 때처럼 오늘날 아직도 또렷하게 살아 있으며, 세계 수십억 명이 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임무가 이론 기적과 아름답게 성취된 그의 목표를 증언하고 있다.



메카산악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하람성원의 조감도

메카, 히라 동굴이 있는 알-누르 산의 파노라마 전경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카아바와 하람성원. 사진. 수잔 에스칸다르(Suzan Eskander)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하람성원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원. 검은색 건물은 카아바.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브라함에게 그분을 찬미하고 경배드리기 위해 카아바를 건축할 것을 명령했다고 믿음.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모든 무슬림의 예배 방향은 오직 한 곳 즉, 카아바를 향한다.

알-누르 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히라' 동굴



꾸바(Qubaa) 이슬람성원: 이슬람역사상 최초의 이슬람성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소재한 예언자의 성원 남쪽 8km에 위치.

'싸우르(Thawr)' 동굴. 예언자 무함마드 SAW와 그의 교우 아부 바크르가
우상숭배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 메디나
로의 이주를 단행했을 때 3일 동안 몸을
숨겼던 동굴.



꾸바 이슬람성원.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바드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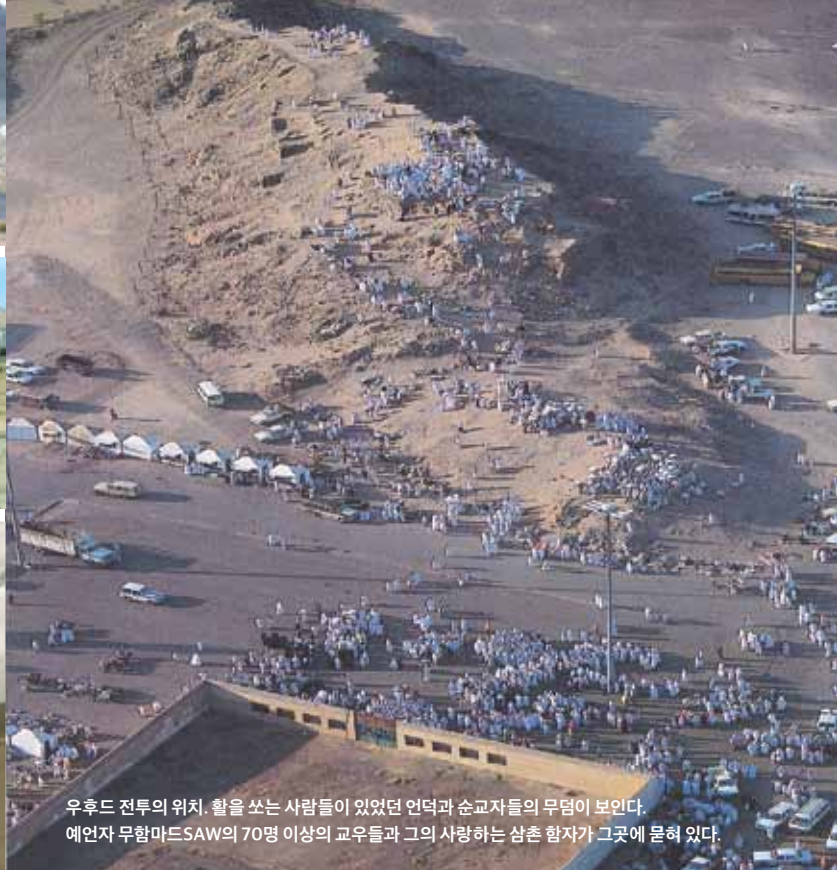
바드르에서 꾸라이쉬 군대가 야영했던 장소



바드르 전투에서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그의 교우들이 야영했던 장소



바드르 전투의 위치



우후드 전투의 위치. 활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던 언덕과 순교자들의 무덤이 보인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70명 이상의 교우들과 그의 사랑하는 삼촌 할자가 그곳에 묻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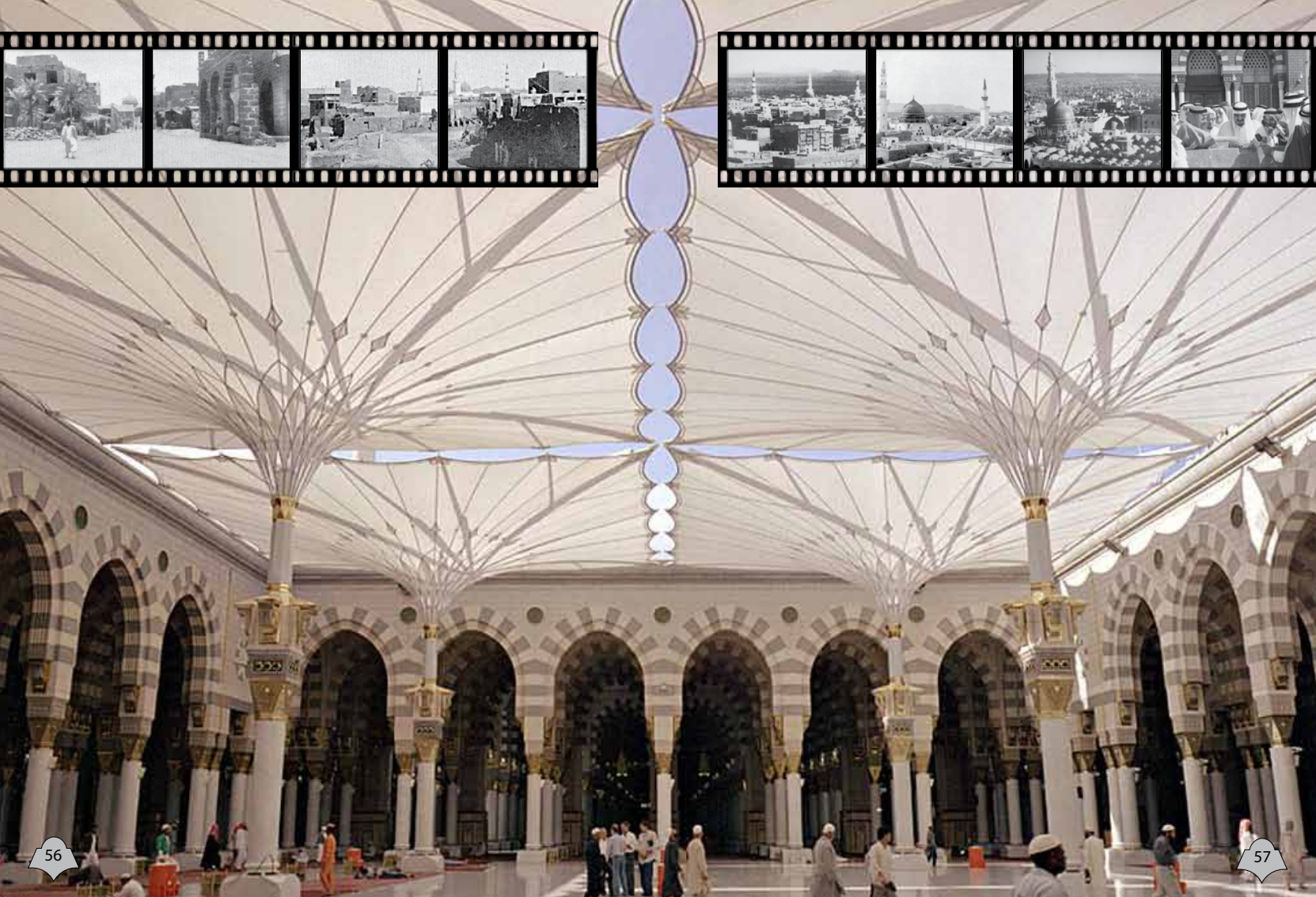
우후드 산, 파노라마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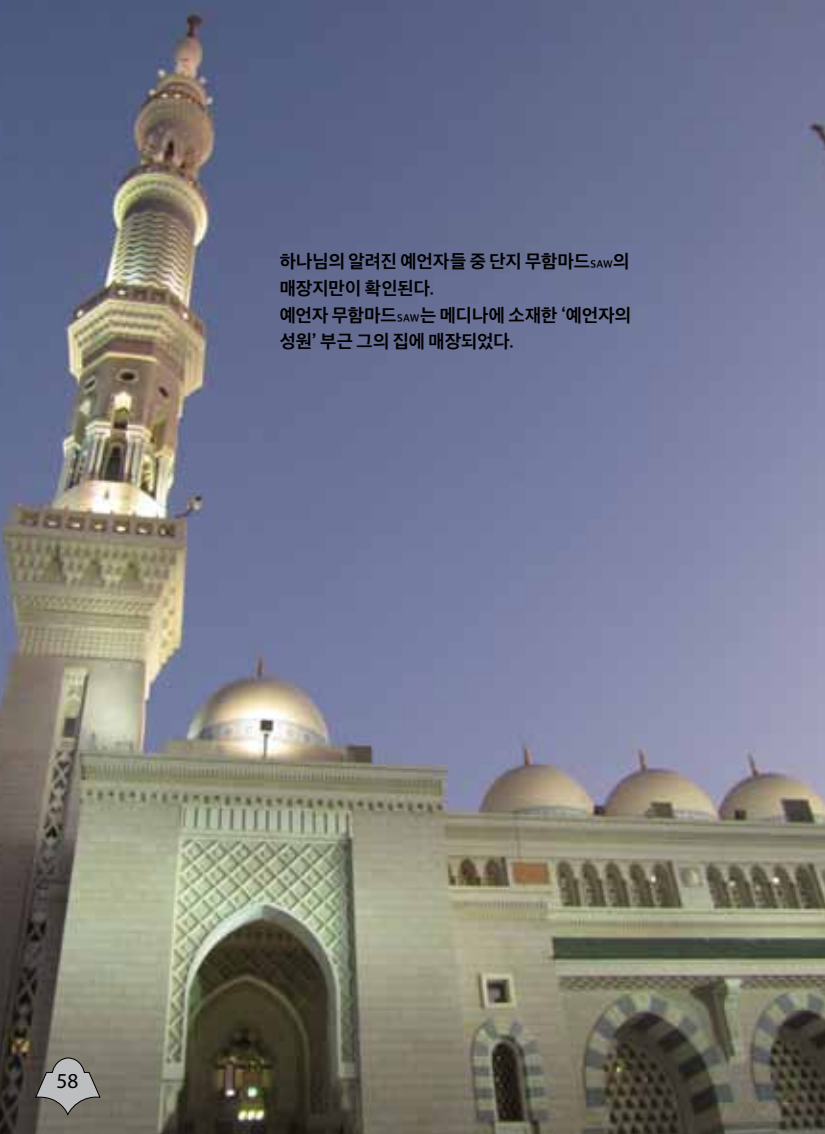


Trench Battle



집들과 야자나무들로 둘러 싸여 있는 예언자의 성원이 보이는 메디나의 가상도
출처: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조사연구소





하나님의 알려진 예언자들 중 단지 무함마드^{SAW}의 매장지만이 확인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디나에 소재한 '예언자의 성원' 부근 그의 집에 매장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묘소를 지나는 사람들



메디나에 소재한 '예언자의 성원'에 있는 예언자 무함마드^{SAW} 묘소(왼쪽에서 첫 번째) 그 옆에는 첫 번째 칼리파인 아부 바크르와 두 번째 칼리파인 우마르의 무덤이 있다.



예언자의 성원(알-마스지드 알-나바위 알-사리프)

사진, 노우샤드 알리(Noushad Ali)

말미의 주석

1. 일부 전언과 계산에 의하면,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출생년도는 '571년'이다.
2. 오늘날 세계의 모든 꾸란은 똑같은 아랍어 원본을 갖고 있다. 아랍어로 쓰인 꾸란은 다른 언어로, 예를 들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과 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꾸란의 번역서 또는 해설서는 원본이 될 수 없다.
3.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이슬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던 타이프(Tai'f)에서 그곳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완전히 지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다음 쪽 참고)
4. 아까바(Aqaba) 또는 알-바야 이슬람성원(맹약(盟約) 이슬람성원): 압바스조 칼리파 아부 자파르 알 만수르에 의해 건축, 이 성원의 장소는 메디나에서 온 새로운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약속을 맹세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5. 소수의 무슬림 공동체가 메카에 머무르고 메디나로 이주하지 못했다.
6. '이슬람력(The Islamic Calendar)'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때부터 시작된다. (이슬람력의 시작은 약 622년 9월 13일이다. 메카 평화 정복은 약 630년 1월 8일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오, 주여! 힘이 약해졌고 난감한 상황에 있으며
치욕을 당한 제가 오직 당신께 호소합니다.

당신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 중에서도
더욱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의 주님은 당신뿐이십니다.
저의 주님은 당신뿐이십니다.

저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를 항복시키려는 적의 손에 맡기셨습니까?
만일 저에게 노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겪은 슬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비추는 당신의 빛에 몸을 맡깁니다.
현세와 내세의 삶을 구할 수 있는 당신의 빛에 몸을 맡깁니다.
저에게 다가올 수 있는 당신의 분노나 불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구합니다.

당신이 흠족할 때까지 늘 당신께 향할 것입니다.



일본 서예가 노부카 사가와(Nobuko Sagawa)의 아랍어 서예 작품

“그리고 내가 그대를 보냈은
단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경고하기 위해서라.”

꾸란 34장 28절

알-누르 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예언자 직분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자신이 예언자가 될 것을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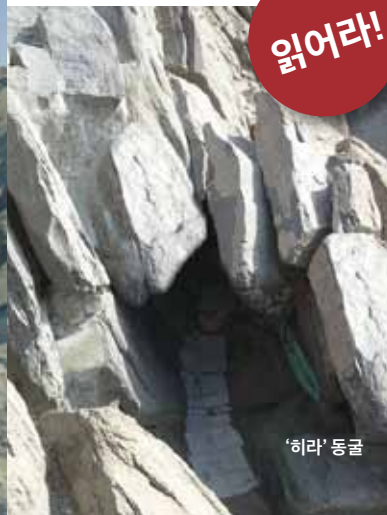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도덕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하였다. 다신론사회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우주가 유일한 분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었다. 나이가 들자, 메카에서 동쪽으로 4km쯤 떨어진 '히라'동굴을 자주 찾게 된 그는 그곳에서 혼자 묵상에 잠기기를 좋아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알-누르 산 '히라'동굴에서 묵상하던 중 하나님의 첫 계시를 받았다.

읽어라!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다: 40세에 접어든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히라'동굴에서 은둔하며 묵상에 잠기곤 하였다. 서기 610년 라마단(이슬람력의 9 번째 달), 그가 히라동굴에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읽어라!”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생전 처음으로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겁이 났다. 문맹인 그가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라고 답하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세계 깨أن었다. 그 후 천사가

'히라' 동굴



브리엘은 그를 풀어준 후 다시 말했다. “읽어라!” 그가 답하길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천사가브리엘은 그를 세 번째로 세계 꺼안은 후 풀어준 다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읽어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대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는 한 응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읽어라! 그대 주님은 가장 관대하신 분.
 펜으로(쓰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셨느니라.”
 꾸란 96장 1-5절

천사가브리엘은 위의 꾸란 구절을 암송한 후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졌다.

겁에 질린 채로 집에 돌아온 예언자 무함마드SAW: 자신이 겪은 굉장한 사건으로 몸을 심하게 떨며 집으로 돌아온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내인 ‘카디자’에게 말했다. “나를 덮어주오, 나를 덮어주오.” 그가 방금 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카디자는 당황하

지 않고 남편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실 거



요르단 서예가 압둘마지드 안나이라트의 ‘무함마드’ 서예 작품.
 이 작품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히라 동굴로 올라가는 것과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을 것임을 암시한다.



예요. 당신은 친척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왔고, 불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았으며 손님을 융숭히 대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왔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보내진 계시는 ‘신의 말씀’이었는가?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이었는가? 남편을 두렵게 한 이 사건이 신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삭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디자는 그녀의 친척인 와라카 이븐 나우팔(Waraqah Bin Nawfal)에게로 그를 데리고 갔다. 와라카 이븐 나우팔은 ‘무지의 시대’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 시대)에 기독교로 입교한 사람으로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 날 밤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들은 후 나이가 많은 와라카는 주저하지 않고 확신에 찬 말투로 말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 보내셨던 바로 그 천사가 브리엘과 만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 나이가 젊어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때까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이전의 성서들에 예언된 예언자가 이제 도래하였음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그(무함마드)의 사람들인 메카 주민들이 그를 쫓아낼 것이며 일부 사람들이 그에게 적대감을 가질 것이라 덧붙였다.

하나님의 예언자 무함마드SAW: 첫 계시 며칠 후,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예언자로서의 임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다음의 꾸란 구절을 계시하였다.

“오, 담요로 덮인 자여! 일어나서 경고하라.
 그리고 그대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대 옷을 정화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피하고 더 많이 언으려 은혜를 베풀지 말라.
 그리고 그대 주님을 위해 인내하라.”
 꾸란 74장 1-7절

하나님의 율법

“말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것을
일러 주리라

- (1) 그분(하나님)께 아무 것도 비유하지 말며
- (2) 부모에게 효도하고
- (3) 가난을 구실로 자손을 살해하지 말라 너희와 그들
을 위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리라
- (4)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죄악에 가까이 하지
말며
- (5) 정의와 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신성
하게 창조하신 어떠한 생명도 살해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그리하여 너희
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니라.
- (6) 고아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고아의 재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의 복지를 위한 것은 제외이니라
- (7) 치수와 (8) 무게를 공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가 감당
할 수 있는 짐을 주시노라
- (9) 말할 때(또는 증언할 때)는 항상 정직하라 가장 가
까운 친척이 관련된 일이라도 그래야만 하니라.
- (10) 그리고 하나님과의 성약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
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니라.”

꾸란 6장 151-152절

꾸란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한 번에 계시된
것이 아니라 23년에 걸쳐 계시되었다. 즉, 이 기간 동안 인간이 현세와
내세의 행복을 이루도록 이끄는 꾸란이 완성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류에 전하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서기 610년
에 첫 계시를 받음으로서 사람들을 이슬람으로 인도했다. 아라비아반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인류의 안
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초대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인류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슬람’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
의 말씀을 율법(샤리아:Shariah)으로 여기는 것이다. ‘샤리아’는 인류
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무결한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 법에 따
라 삶을 영위할 것을 명하셨다.

샤리아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 (1) 숭배행위: 예배, 단식, 희사 등.
- (2) 생활상의 거래와 사람간의 교섭: 공정의 원칙, 인권, 결혼, 이혼, 기
업윤리, 상속 등.
- (3) 도덕: 올바른 행위, 예의, 가치관 (정직성, 성실성, 충실함, 사랑, 협
조 등).

주석: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예언자의 임무를 시작한 후 메카에서 13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 설교하였으며 메디나로 이주한 후에는 이슬람 율법을 설명하
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독교인 왕에게 이슬람 소개: 메카에서 무슬림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약 80명의 무슬림을 아비시니아(현재의 에티오피아)로 이주시켰다. 보호를 요청받은 네구스(Negus) 왕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네구스 왕이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 묻자 무슬림을 대표한 '자으파르 빈 아비 딸립(Ja'far bin Abi-Talib)'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왕이시여! 과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며, 죽은 동물의 살을 먹고, 추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또 친족 돌보기를 게을리 하고, 이웃에게 죄를 저지르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한 명을 예언자로 선택하여 말씀을 보내셨는데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 믿음직한 성품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불러 모아 명하길,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우리 선조가 일삼던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실한 말을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과 친족을 보살피고, 이웃을 친절히 대하며, 동물의 피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거짓된 말을 금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를 두지 말며, 예배를 드리고, 희사를 하며, 단식을 하라 명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진실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를 믿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사람들은 우리를 박해하고 고문하면서 우리의 종교를 포기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희망하며 귀하의 나라로 왔습니다.”



기독교인 왕이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알린 이슬람을 인정함: 자으파르 빈 아비 딸립의 말이 끝나자마자 왕이 재촉하였다. '신에 의해 너희의 예언자에게 내렸다는 계시를 말해 보아라.'

이에 자으파르는 예언자 요한^{AS}과 예수^{AS}의 이야기가 담긴 꾸란의 마리아 장 첫 부분(1절-40절)을 소리 내어 읽었다.' 그것을 들으면서 왕은 눈물을 흘렸다. 자으파르가 송독을 마치자 왕은 말했다.

“실로 이 계시와 예수의 메시지는 모두가 같은 근거에서 나왔다.”

기독교 왕은 그들이 아비시니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티그라이(Tigray) 이슬람성원
네가시(Negash) 마을, 에티오피아



이슬람의 메시지

'이슬람'은 "평화, 복종, 귀의"

이슬람은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고 인도에 따름으로써 자신의 평화와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과 평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창조주에게 귀의함을 의미한다.

이슬람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며 다른 종교의 모방도 아니고 각 종교의 가르침을 모은 종교도 아니다. 이슬람 신앙의 기반은 하나님
의 유일성(唯一性)에 대한 믿음에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며 낳거나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대등할 수 없다 (꾸란 112장 1-4절).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슬람에서 믿는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슬람의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슬람은 유대교, 기독교에서 믿는 신과 같은 신을 믿는다. 이슬람이 아랍어로 계시되었기에 신(창조주)의 이름은 "알라 (ALLAH)"다. 한국어로는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창조주의 속성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나타낸다. 99개의 아름다운



영어	아랍어	히브리어	아랍어
God	엘라(Elah)	엘로하(Eloha)	엘라하(Elaha)

“그분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신 분,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분이시니라.
그분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니,
그분은 왕, 가장 성스러우신 분, 평화의 근원이시며 완벽하신 분,
신앙과 안전을 부여하시는 분, 우주 만물의 보존자이시며 보호자,
가장 강하신 분, 신법의 강제자, 지고하신 지존자이시로다.
그들이 (그분께) 견줄 자를 두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지어다.
그분은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 모든 형상의 제작자이시로다.
가장 훌륭한 이름들이 그분께 속하노라.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분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지어다!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 가장 현명하신 분이시로다.”

꾸란 59장 22-24절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암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 중 “알-라흐만(가장 자비로우신 분)”과 “알-알림(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 다시말해 세상 누구도 하나님보다 자비롭거나 많이 알 수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이슬람: 어떤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질문했다. ‘오, 하나님의 예언자시여!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이 단순명쾌하게 이슬람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에 확신을 가져라.”

이슬람 신앙은 극단적이지 않은 조화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이슬람과 평화: 언어학적으로 아랍어 단어 “이슬람”은 “살라마(salama)”라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했다.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살람(salam)” 즉, “평화”를 뜻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무슬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무슬림이란 자신의 손(행동)과 말로

다른 무슬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또한 이슬람에서 “평화”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다. 인간이 창조주에게 순종하여 그분의 인도에 따를 때 비로소 자신의 평화와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이슬람에서 평화에 대한 염원은 무슬림의 인사말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무슬림은 국적과 인종,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인사한다. 먼저 “앗살라무 알라이쿰(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와 알라이쿰 살람(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고 답한다. 즉,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무슬림 간의 인사는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똑같다. 무슬림은 서로 인사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화를 기원하며 그 결과

무슬림 상호간에 사랑과 신뢰, 보호와 안정감이 형성된다.

이슬람 인사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의미도 내포한다.



‘무슬림’인가 ‘무함마드교도’인가? 많은 서양 학자가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SAW}에 의해 창시된 종교이며 따라서 무함마드가 ‘이슬람의 창시자’라는 그릇된 생각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했다. 서구사회에서 이슬람은 무함마드의 종교를 뜻하는 무함마드교(마호멧교)로 그리고 무슬림은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무함마드교도(마호멧교도)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

‘무슬림(muslim)’이란 ‘이슬람 신자’를 뜻하는 아랍어이며, 무슬림은 하나 뿐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슬람의 6가지 기본 믿음: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5가지 믿음, 즉 천사들에 대한 믿음, 성서들에 대한 믿음,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 내세에 대한 믿음, 정명에 대한 믿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이슬람 신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

이슬람은 다섯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으며 무슬림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슬람이라는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5개의 기둥을 떠올려 보자. 만약 이 5개의 기둥 중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 지붕은 무너질 것이다. 다시 말해 무슬림이 이 5가지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약해져 무너지게 된다.



1	신앙의 증언 (샤하 - 다: Shahadah)	이슬람의 기본 신조. 신앙의 증언은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앙심을 나타내는 근본이다.
2	예배 (살라트: Salat)	매일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3	단식 (싸얌: Siyam)	이슬람력으로 '9월'인 라마단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한다.
4	희사 (자카트: Zakat)	1년에 한 번 가난한 사람에게 희사한다.
5	성지순례 (hajj: Hajj)	정신적, 재정적, 신체적 능력을 갖춘 모든 무슬림이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성지 메카의 카아바를 순례한다.

1. 신앙의 증언(샤하 - 다: Shahad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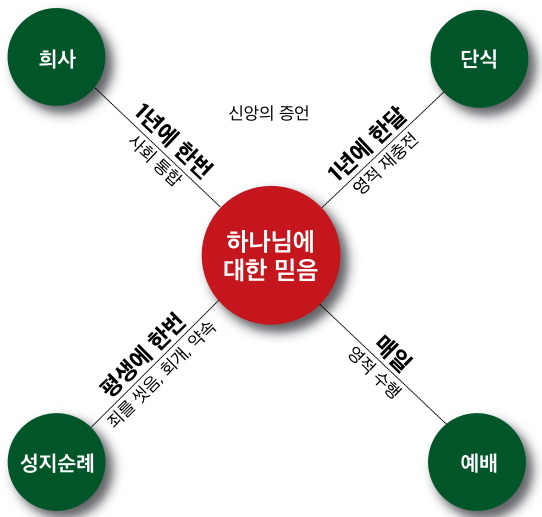
이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즉, '신은 한 분'임을 인정함을 뜻한다. 이 문장을 입으로 말함으로써 오직 한 분 이신 창조주만을 숭배할 것이며 그 분이 선택하신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SAW}임을 믿는다는 맹세를 하는 것이다.

무슬림이 되고자 한다면 한 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신앙의 증언(샤하 - 다)'을 하면 된다. 즉, "아슈하두 안라 - 일라 - 하 일랄라 -,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 - 롤라."(나는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라는 아랍어 문장을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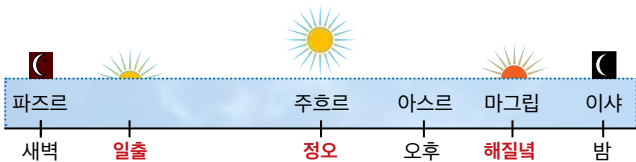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 또한 인정함을 뜻한다.

'신앙의 증언(샤하 - 다)'을 표현한 아랍어 서예 작품. '나는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라는 의미.



2. 창조주와 직접 만남(1:1), 예배(살라트: Salat)

'예배'는 창조주와 믿는 자 사이를 연결하는 고귀하고 중요한 소통이며 창조주께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다. 이슬람의 예배는 꾸란 암송과 함께 특정한 자세와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마음과 입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는 숭배행위이다.



“나의 종복들이 그대에게 나에게 관해 물을 때
나는 너희들 가까이서 내게 예배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부름에 따라라 나를 믿는 자들은
올바른 길로 인도되리라.”

꾸란 2장 186절

예배는 신앙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각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 절하는 육체적 움직임이 있다. 예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증가시킨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데에만 집중해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 SAW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순간은 엎드려 절하는 자세를 갖출 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루 5번의 예배는 하루 24시간 중 채 30분도 소요되지 않는다.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매일 여러 번 음식을 먹는 데 이에 대해 불평하지 않듯이 인간의 영혼도 정신적 자양분을 필요로 한다. 예배는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무수히 많은 선물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에 불과하다.

3. 희사(자카트: Zakat)

이슬람에서 희사는 단순히 자기 재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기부하는 행위만이 아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재물 또한 인간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다. 즉, 내가 가진 부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며 가난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남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양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무슬림에게 매년 순수입의 2.5%를 희사하도록 명하셨다.

희사를 하는 사람은 희사를 함으로써 이기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희사를 받는 사람은 부유한 자를 향해 가질 수 있는 질투와 시기, 미움과 불만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사회,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즉, 희사는 이기적 탐욕과 사회적 불화, 파괴적 이념의 침투로부터 사회를 건전하게 지키는 수단이다.

4. 단식(싸얌: Siyam)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은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째 달인 라마단이 시작되어 밤하늘에 초승달이 나타나면 그 밤이 지난 새벽부터 일제히 단식을 시작한다. 매일 새벽(파즈르: fajr)예배 시작 바로 전부터 일몰 때까지 한 달(약 30일)동안 단식한다. 라마단 달 동안 무슬림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음식과 음료와 성관계를 멀리한다.



단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사항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께 순종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가! 단식을 통해 무슬림은 굶주리는 사람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지 깨닫게 된다. 단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는 경험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단식을 통해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간격은 좁혀지고 관계는 개선되며 그 결과 견고하고 조화로운 사회가 형성된다.

단식은 정신을 일깨우고 인내를 가르치며 오만함을 없애고 겸손과 겸허함을 배우게 하며 자선을 촉구한다. 단식은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에 의사들도 추천하는 이상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

5. 성지순례(하즈: Hajj)

성지순례는 이슬람력으로 12월(둘 히자) 8일부터 13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행해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로 가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순례를 한다.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성지순례'는 남녀를 불문하고 정신적, 재정적, 신체적 능력을 갖춘 모든 무슬림이 평생에 한 번은 행해야 하는 의무다.

이슬람 달력	
1	무하람
2	사파르
3	라비울 아우왈
4	라비울 올라
5	주마달 올라
6	주마달 싸니
7	라잡
8	샤오반
9	라마단
10	샤우왈
11	둘-까오다
12	둘-히자

한 분이신 하나님, 단 하나의 메시지

꾸란의 예언자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에 기초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인간을 인도할 특별한 존재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예언자를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 모든 예언자는 같은 목적,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며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다.

꾸란에 언급된 예언자 수는 25명이다. 꾸란에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인간이자 예언자인 아담이 25번, 노아는 43번, 아브라함은 69번, 모세는 136번, 예수는 25번 등장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나와 기존 예언자들과 관계는 누군가가 지은 저택과 같노라. 그는 저택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완벽히 하였지만, 구석의 벽돌 하나만을 남겨두고 채우지 않았노라.

사람들은 저택 주위를 돌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이 부분을 벽돌로 채우면 좋으련만’ 하고 아쉬움을 표하니, 내가 바로 그 벽돌이며, 나는 모든 예언자의 봉인이니라.”

부키리가 전함 4734, 4735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첫 번째 예언자 아담이 인류에게 알린 창조주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그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냈으되
그중에 그대에게 언급한 자 있었고 언급하지 아니한 자 있었으며
어떤 예언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예증도 이르지 아니했노라.”
꾸란 40장 78절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 받은 것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선별치 아니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니라.”
꾸란 2장 136절

토라, 시편, 복음서 그리고 꾸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낸신 계시

모든 성서는 서로 다른 교리가 아니며 단 하나의 핵심 즉,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이든 파생적이든 서로 같은 내용이며 하나뿐인 창조주에 관한 내용이다. 이전에 계시된 성서들이 인간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성서가 계시되었다.

꾸란 이전에 계시된 3개의 성서(토라, 시편, 복음서)는 그 내용이 왜곡되고 변질되었기에 성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이 성서들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saw}에게 마지막 성서인 꾸란을 계시하셨으며, 오직 꾸란만이 단 한 글자도 변질되거나 왜곡됨 없이 창조주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이 갖고 있는 꾸란(아랍어로 된)은 모두 같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내리사 복음과 빛이 그 안에 있음이라…” 꾸란 5장 44절

“하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그 이전에 계시된 토라를 확증하면서 그들(예언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했노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계시하여 그 이전에 계시된 토라를 확증하면서 그 안에 복음과 광명을 주었으니…” 꾸란 5장 46절

“그리고 나는 그대(무함마드)에게 진실로써 성서(꾸란)를 내렸으니 그 이전의 성서를 확증하며 증언하는 것이니라.” 꾸란 5장 48절

“이들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예언자들이라 그 중에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오른 자가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이 있으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한 자가 있으며 선택한 자가 있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들은 부복하고 경배하여 눈물을 흘렸노라.” 꾸란 19장 58절

표1: 주요 예언자의 생애

예언자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시기	기원전 약 1,700년 경	기원전 약 1,400년 경	서기 1 - 33	서기 570 - 632
연령	175	120	3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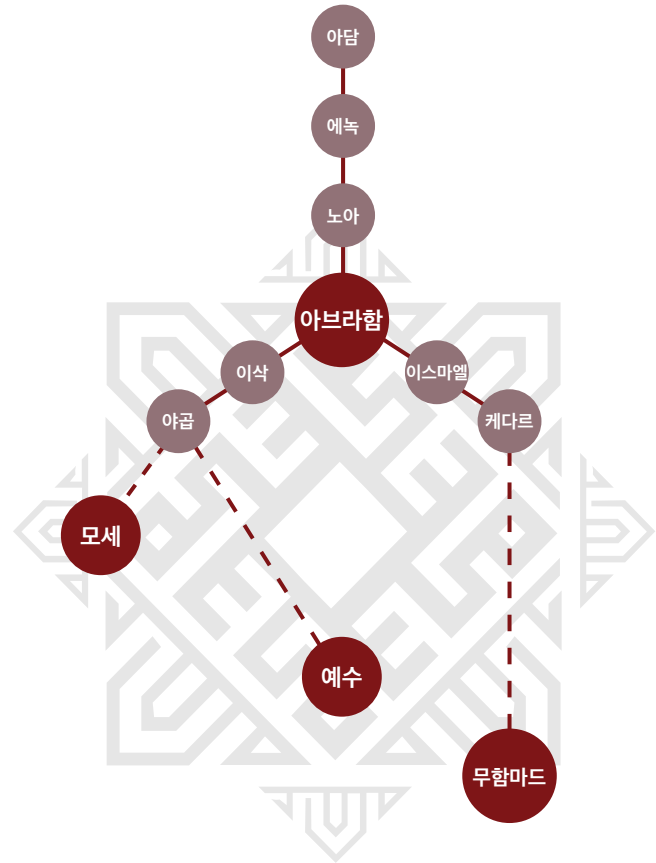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예언자 아브라함^{AS}

예언자 아브라함^{AS}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종교에서 예언자들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많은 예언자가 그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선조는 예언자 아브라함의 장남이자 많은 아랍부족들의 아버지인 '이스마엘'이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예언자 즉 야곱, 요셉, 아론과 모세의 선조는 예언자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이다.

예언자 아브라함^{AS}은 사람들에게 창조주는 한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꾸란에는 예언자 아브라함^{AS}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며 특히 그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숭고한 마음으로 믿고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언급한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성, 정직성, 복종과 감사를 늘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예언자 아브라함^{AS}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나 그의 믿음은 진실하고 순수하였으며 그의 신앙의 실천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예언자 아브라함^{AS}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예언자들의 조상



“가장 훌륭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반려자로 택하셨노라.”

꾸란 4장 125절

사람들이 예언자 아브라함^{AS}을 불속에 던졌을 때 그는 불에 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에게 그를 태우지 말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무 상처도 없이 목숨을 건졌다. (꾸란 21장 69절 참조)

꾸란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예언자를 ‘무슬림’이라 칭한다. 따라서 무슬림은 전적으로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의 추종자로 국한되지 않는다. 무슬림은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언자를 추종한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성실한 무슬림이었으며
또한 우상을 숭배한 분도 아니었노라.”

꾸란 3장 67절

비고: ‘아브라함(Abraham)’의 본명은 ‘아브람(Abram)’ 또는 ‘아우람(Avram)’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람어로 ‘이브라힘(Ibrahim)’이라고 불린다. 천주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동방 정교회는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칭한다.

최초의 예배당은 예언자 아담^{AS}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예언자 노아^{AS}의 방주 사건 후 예언자 아브라함^{AS}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AS}이 재건축했다. 이것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정육면체의 ‘카아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카아바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할 것을 명하셨고 그곳을 정결히 하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카아바를 경배의 중심지로 만드셨다.

예언자 아브라함^{AS}과 아들 이스마엘^{AS}의 기도

예언자 아브라함^{AS}과 아들 이스마엘^{AS}이 카아바를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다.

“오, 주여!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당신에게 귀의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 후손들도 무슬림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당신에게 귀의하도록 하여 주소서
당신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려 주소서 저희들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실로 당신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꾸란 2장 128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하람성원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원. 검은색 건물은 카아바.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브라함에게 그분을 찬미하고 경배드리기 위해 카아바를 건축할 것을 명령했다고 믿음.

세계 어느 곳에 있던 모든 무슬림의 예배 방향은 오직 한 곳 즉, 카아바를 향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카의 하람 성원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른 성원에서 드리는 십만 번의 예배보다 더 좋으니라.”고 말씀했다.

성지순례

하즈 Hajj

매년 300만 명이 넘는 무슬림이 세계 곳곳에서 성지순례라는 위대한 의무를 행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는다. 이슬람 신앙과 실천의 5가지 기둥 중 하나인 '성지순례'는 인류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의식으로 메카에 있는 카아바와 주변의 성스러운 장소들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방문하는 것을 뜻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순례의 방법을 예언자 아브라함^{AS}의 의식에 따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는 "따와프(Tawaf)" 즉, 카아바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곱 번 순회하는 의식을 하였다. 이 의식은 행성과 전자의 움직임까지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카아바를 순회한 후 예언자 아브라함의 장소(아브라함이 카아바를 세울 때 올라갔던 돌. 그 돌에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뒤쪽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싸파(Safa)’와 ‘마르와(Marwa)’ 동산 사이를 7차례 걸었다. 이에 대한 배경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예언자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이 사막의 열사와 갈증으로 사경에 이르자 두 동산 사이를 일곱 번 뛰면서 하나님께 물을 청하였다. 그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마엘^{AS}의 발밑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물이 끓임없이 솟아 나오는 것을 멀리서 본 하갈은 “잠-잠(zam-zam; 멈춰라, 멈춰라)!”이라고 외쳤다. 그녀는 급히 뛰어와 목마른 아들에게 신선한 물을 먹였다. 그리하여 이스마엘^{AS}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다. 이 샘물은 지금까지도 마르지 않고 있는데 현재 메카의 성지순례자들이 마시는 ‘잠잠’ 샘물이다. 이스마엘^{AS}과 하갈은 이 잠잠 샘물로 인해 메마른 계곡

에서 살 수 있었고 이 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이주했다. 그리하여 지금의 ‘메카’라는 도시가 탄생했다.

싸파, 마르와 동산 사이의 거리는 약 395m다. 성지순례의 의식 중 “싸이(Sa’ee)”는 싸파, 마르와 동산 사이를 7차례(2.76km) 힘찬 발걸음으로 걷다가 뛰는 것으로 싸파 동산에서 시작하여 마르와 동산에서 끝난다. 이 의식은 일, 운동, 활동, 여행, 노력 등 사람이 삶에서 행하는 행동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유익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 즉,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또 다른 성지순례 의식은 “자마랏(Jamarat: 예언자 아브라함이 사탄을 이겨냈던 미나(메카에서 8km 동쪽)에서 3개의 돌기둥에 7개의 조약돌을 던짐)” 의식이다. 예언자 아브라함이 ‘미나’에 도착했을 때 사탄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



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희생하려는 아브라함을 만류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작은 돌을 모아 사탄에게 던졌다. 사탄은 또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만류하려 했지만 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돌을 모아 사탄에게 던졌다. 무슬림은 미나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예언자 무함마드_{SAW}는 무슬림에게 하루 다섯 번 예배 중 예언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기도문을 가르쳤다. 예언자 무함마드_{SAW}의 아들 중 어린 시절에 죽은 아들의 이름도 “아브라함”이었다.

“말하라! 실로 나의 주님께서 나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그 길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진리의 길이라 또한 그분(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무 것도 비유하지 아니 했노라.”

꾸란 6장 161절

돌을 던지는데 이 의식은 사탄과 인간 내면의 사악한 욕망에 대항하는 도전을 상징한다.

마지막 의식으로 양이나 가축을 희생시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려 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심에 매우 만족하시고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숫양 한 마리를 보내시어 사실상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숫양이 희생되도록 하셨다. 예언자 무함마드_{SAW}는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언자 아브라함_{AS}의 신앙심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양이나 가축을 희생하도록 하였다. 희생된 가축의 3분의 1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3분의 1은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



예언자 아브라함^{AS}은 헤브론(Hebron: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요르단강 서안의 도시)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묘소는 그의 이름을 따라 “알마스지드 알 이브라힘(아브라함 성원)” 안에 있다. 이 곳은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진다.

사각형 형태의 건물에 2개의 첨탑 그리고 많은 방과 지하동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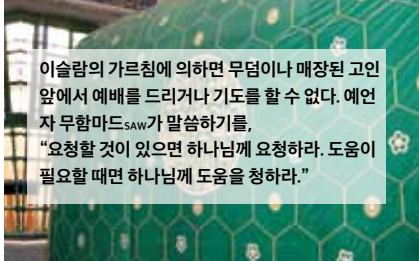
건물의 중앙에 있는 방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의 기념비가 있으며, 남쪽 방에는 이삭과 레베카의 기념비, 그리고 북쪽 방에는 야곱과 레아의 기념비가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레베카, 레아의 유물이 지하의 큰 방에 안치되어 있다.

비고: 이슬람에서는 고인의 무덤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행위와 같은 어떠한 숭배행위도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덤의 구조는 바닥으로부터 몇 cm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한다.



예언자 아브라함^{AS}의 기념비

이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무덤이나 매장된 고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수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요청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요청하라.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예언자 모세^{AS}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예언자 모세^{AS}에 대하여 “나의 형제 모세”라고 찬사를 표하였고, 최후 심판의 날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옥좌 한 곳을 잡고 있음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Sahih Al-Bukhari, 4/157, 3408, 4/159, 3414)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메디나에서 유대인이 아슈라 날에 단식하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날은 정의로운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하신 날로서 모세가 이 날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우리는 여러분보다 모세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씀했고, 모든 무슬림에게 아슈라 날과 전후 즉, 9일과 10일 또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단식을 권장하였다.

* 아슈라(Ashura)날: 이슬람력 1월인 무하람(Muharram)의 10일째 되는 날.

꾸란의 약 3분의 1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아론, 스가랴와 요한 등 예언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과 모세가 강한 신앙과 의지력을 가진 예언자 중의 하나라고 묘사한다(꾸란 33장 7절 참조).

이러한 예언자들은 5명으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깃들기를이다.

예언자 모세^{AS}는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사해 근처의 네보(Nebo) 산 가까운 곳에 묻혔다. 기념비는 요르단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예언자 예수^{AS}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라. 그(예수)와 나 사이에 다른 예언자가 오지 않았느니라.
또한 모든 예언자는 어머니가 다르지만, 종교는 하나이나라.”
(Bukhaari, 3285)

꾸란은 ‘예수^{AS}’를, 마리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소식”
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언
급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를 성령(가브리엘 천사)으로 하여금 보호토록 하셨
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
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 보냈다. 꾸란 2장 87절, 3장 45-49절, 4장 171절 참조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예
언자 모세^{AS}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고 있다. 두 분은 예언자이
며 하나님의 성서를 받은 분으로 자
신의 민족을 인도하고 그들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 또한 그들은 결혼
을 하였고 자식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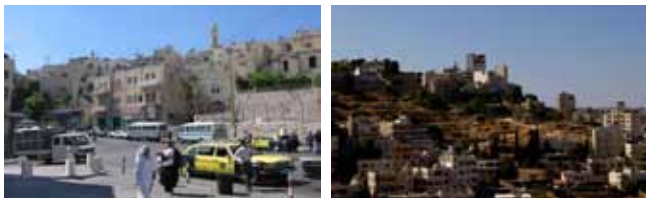


나사렛(Nazareth)은 팔레스타인 갈릴리(Galilee) 지방에 위치한 유서 깊은 작은 도시다. 복음서는 이 도
시가 마리아의 고향이며 예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고 언급한다.

꾸란은 또한 예수를 현세와 내세에서 고귀한 분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운데 한 분으로 묘사한다.

꾸란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서와 지혜와 토라와 복음서를 가르치셨음을 명시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 예수가 장님과 나환자를 치유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언급이 있다.

무슬림은 승천하였던 예수가 종말이 되면 지상으로 내려오리라 믿는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예수가 오기 전에 부활의 날은 이루어지지 않을



베들레헴(Bethlehem)시(市):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예수탄생 교회(Church Of Nativity).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곳을 예수가 탄생한 장소로 믿고 있다.

것이라 말씀했다.

예수는 종말이 오기 전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세울 것이다. 그는 닛달(Dajjal; 적그리스도)이라는 존재를 죽이고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이게 할 것이다. 예수는 자신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믿음(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믿음)을 바로잡아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숭배하도록 이끌고 지상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예수가 다마스쿠스의 동쪽지역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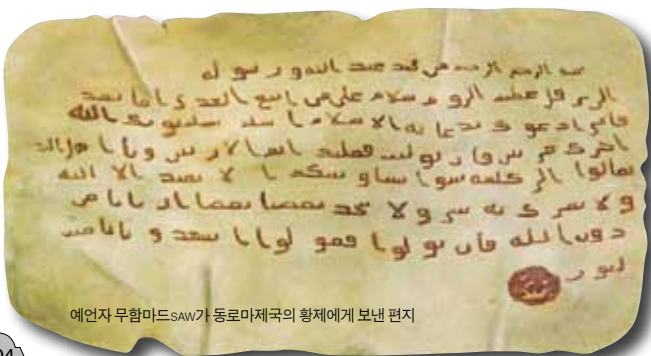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전달한 보편적 메시지

무슬림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유일성을 담고 있는 똑같은 말씀을 받았다고 믿는다. 다만 그의 임무는 보편적이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진리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노력했으며 선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내(하나님)가 그대(무함마드)를 보냄은 단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라.”

꾸란 21장 107절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동로마, 페르시아, 이집트 등 주변국 지도자에게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동로마제국의 황제 헤라클리우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라클리우스는 초대장을 받고 예언자 무함마드^{SAW}에 대해 더 알고자 메카에서 온 사람들을 찾았다. 그 중 한 명이 아부 수피안(메카 지도자)였다. 황제는 예언자 무함마드^{SAW}에 대한 진실을 원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동로마제국의 황제에게 보낸 편지

헤라클리우스 그자의 혈통은 어떠한가?

아부 수피안 그는 고귀한 혈통을 지녔습니다.

헤라클리우스 그는 약속을 저버리는 자인가?

아부 수피안 아닙니다.

헤라클리우스 그를 따르는 자가 늘고 있는가? 아니면 줄고 있는가?

입교한 자 중에 변심하여 종교를 바꾼 경우가 있는가?

아부 수피안 늘고 있습니다. 입교한 자 중에 종교를 바꾼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헤라클리우스 그가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부 수피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것과 사회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리우스는 잠시 생각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가 이야기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무함마드)는 곧 내 두 발아래에 있는 이 지역을 통치할 것이오.



헤라클리우스는 610년에서 640년까지 동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다. 재위동안 3번의 큰 전쟁을 수행했으며 페르시아제국 정복 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합병했다.

632년에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이슬람 세력 하에 들어갔는데, 642년에는 페르시아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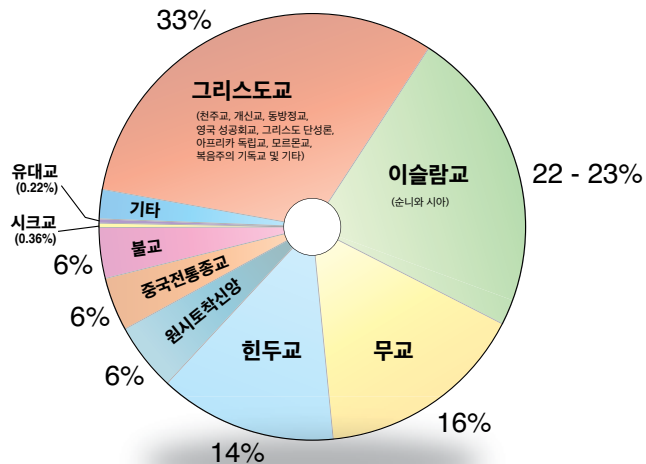
세계의 종교 이슬람: 이슬람은 기독교 다음으로 큰 종교다. 2009년에 200개국을 중심으로 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슬람인구는 총 15억 7천만 명에 이르며 세계 인구 68억 중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종교와 사회 문제 연구 전문기관 '더 퓨 포럼'(Pew Forum on Religion&Public life) 2009)

이슬람은 아랍인의 종교인가?: 전 세계 무슬림 중 4분의 1 미만이 아랍인이다.

기독교 인구는 총 21억 명에 이르며 세계 인구 중 33%에 달한다.

종교를 갖지 않은 인구는 11억 명(16%)이며 유대교인은 1,400만 명 정도(0.22%)다.



말미의 주석

1. 꾸란의 마리아(19)장 16-23절에 언급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우함마드여!) 성서(꾸란)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라. 그녀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동편의 한 곳으로 물러났을 때, 그녀는 그들이 없는 곳에 장막을 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성령(가브리엘)을 보냈으며, 그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녀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녀가 (놀라) 말하였다. “진실로! 저는 자비로운 분께 당신(이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가호를 구하옵니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천사)가 말하기를 “실로, 나는 순결한 아들(의 선물)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 온 당신 주님의 사자일 뿐입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어느 남자도 저와 접촉하지 않았고, 또 제가 부정한 여인이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주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게 쉬운 일이다. 사람들에게 한 징표로서, 우리로부터의 자비로 우리는 그를 만들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느니라’”

그러하여 그녀는 잉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벧축의) 그와 함께 멀리 떨어진 한 장소로 은신해 갔느니라. 출산의 진통이 그녀를 대추야자나무 줄기로 (가서 매달리게) 이끌었느니라. 그녀가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잊혀진 망각의 존재가 되어 좋을 텐데...”

꾸란 19장 16-23절

마리아에 대해 언급된 꾸란의 내용에 의하면, 마리아가 아들(예수)과 함께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그들이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갓난아기였던) 예수가 기적적으로 말을 했다. 꾸란의 마리아(19)장 30-35절에서 언급된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그(아기)가 말하기를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성서를 주셨으며, 나를 예언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축복하게 만드셨으며, 내가 살아 있는 한 예배를 드리고 회사를 바치도록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에게 효도하게 (만드셨고), 거만하거나 은혜 받지 못하는 불행한 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내가 죽은 날,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되는 날에 내게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은) 그들의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리의 말이라. 아들을 가지신다는 것은 그분(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옵니이다. 그분께서 어떤 일을 정하실 때, 그분께서는 단지 말씀하기를 “있어라!” 그러면 그것이 있게 되느니라.”

꾸란 19장 30-35절



وَالْعَالِيَّ كَلِمًا
وَالْعَالِيَّ كَلِمًا

“진실로 그대는 고결한 품성을 지녔도다.”

꾸란 68장 4절

자기계발과 리더십

몸과 영혼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균형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정신과 물질 사이의 균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우들에게 몸과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고 몸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합법적인(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한 따라서 '이슬람'을 사람들의 몸과 영혼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되도록 격려했다.



극단주의를 멀리하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균형 잡힌 삶과 올바른 시각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강조했다.

극단주의
금지

세 사람이 예언자^{SAW}의 경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가 집에 없자 그의 부인이 그들에게 예언자^{SAW}의 경배방법에 관해 알려주었다. 그들은 부인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SAW}의 경배방법이 그리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여 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육체적 필요와 자연스런 욕구들은 간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들이 이해한 바로는 신앙이란 결혼하지 않



고 독신으로 살며 매일 단식하고 하루 다섯 번의 예배와 함께 매일 밤중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들의 위와 같은 생각을 알고 슬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 맹세하니 나는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며 너희들보다 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라. 하지만 나 또한 때로는 단식하고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밤에 예배드릴 때도 있지만 잠을 잘 때도 있느니라. 또한 여성과 결혼하기도 하느니라.”

그리고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든 나의 순나(Sunnah: 관행)에 역행한다면
그는 나에게 속하지 않느니라.”
(Bukhaari, 1184) and (Muslim, 849)

이슬람은, 내세를 위해 현세를 또는 현세를 위해 내세를 희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양쪽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해야 하는 종교이다.

이슬람은 쉬운 종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 이상의 선택사



서예가 비삼 샤우카트
(Wissam Shawkat)의 작품

항이 주어진다면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항상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합법적인 한계 내에서 가장 쉬운 것을 선택했다.

정화와 청결

이슬람신앙에서 ‘청결’과 ‘개인위생’은 필수요건이다.

“... 실로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는 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분께서는 청결한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꾸란 2장 222절

“그대의 망토를 청결하게 할 것이며”

꾸란 74장 4절

‘몸의 일부’를 씻는 행위인 ‘우두(Wudu: 부분세정)’는 예배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부분세정은 손, 입안 행구기, 콧속 행구기, 얼굴,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머리, 귀 그리고 발의 순서대로 씻는다. 우두를 함으로써 인간의 몸과 영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적의 상태가 된다.



구슬(Ghusl: 전체 세정)

‘구슬(Ghusl)’이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몸 전체’를 물로 씻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슬람에서 강력히 권고하는 청결행위로서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순나(Sunnah: 관행)이기도 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우두(부분세정)만으로는 청결하게 될 수 없으므로 구슬을 하여 전신을 완전히

씻어내야 한다. 부부관계 후, 몽정 또는 사정을 했을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나 출혈이 끝났을 때와 산욕기가 끝났을 때, 이슬람에 입교할 때, 사망했을 때(매장하기 전).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삶의 모든 면에서 청화와 청결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우들에게 그들의 집 안팎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기를 권장했다. 또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나 해로운 것을 치우는 것도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자선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의 교우들에게 청결과 개인위생을 잘 유지하도록 충고한 내용이다.

- 옷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되 사치스럽게 입지 말라.
- 향수를 바르라.
- 손발톱을 깎고 겨드랑이 털과 음모를 제거하라.
- 식사 전과 후에 손을 씻어라. 잠에서 깬 후 손을 씻기 전까지는 음식에 손대지 말라.

청결은 신앙심과 함께 한다
청결은 신앙의 절반이니라.
 예언자 무함마드^ﷺ
 (무슬림과 티르미지가 전함)



미스왁 (Miswak: 나무 칫솔)과 치아보호. 종일 깨끗한 입과 좋은 호흡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나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두려움만 아니었다면 (하루 다섯 번의) 예배 전에 미스왁(나무 칫솔)으로 치아를 닦는 것을 의무화하였을 것이니라.”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미스왁(Miswak: 나무 칫솔)’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살바도라 페르시카(아라크 나무)’라고 불리는 이 천연 나뭇가지 칫솔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히 사용하는데 치아 사이가 깨끗이 닦일 뿐만 아니라 나무재질이기에 때문에 부드러워 치아와 입안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

미스왁에 대한 화학적 분석에 의하면 많은 양의 불소와 실리카, 비타민 C, 작은 양의 염화물, 탄닌,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스테롤과 미네랄 등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상적인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비고: 미스왁에 대한 분석연구에 의하면, 미스왁 나무에 포함된 항균 오일과 탄닌은 잇몸 약화와 잇몸 출혈 그리고 치태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치아미백에도 효과가 있다.

미스왁에 포함된 염화물이 치태와 치석얼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 C는 치아를 치유하는데 효과적이고 치아조직을 강화시킨다. 그밖에 미스왁의 사용으로 인해 얻게 되는 혜택은 두통완화, 시력강화, 감기, 구취질, 현기증의 예방 등이 있다.



지식의 탐구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과학의 진보와 문명의 발달을 격려하는 안내와 빛을 갖춘 메시지를 가져왔다. 그가 받은 계시의 첫 마디가 **“읽어라!”**였다. 이 말은 10년 이내에 아라비아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과학과 지식에 대한 혁을 일으켰다.

꾸란에는 ‘읽어라, 생각하라, 배워라, 관찰하라, 탐험하라, 이해하라, 숙고하라, 고려하라, 보라, 상기하라’ 등의 말들이 자주 언급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인간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익한 지식을 탐구하고 배우는 것을 격려했다. 그는 교

“진실로 하늘들과 땅의 창조와 낮과 밤의 교체에는 이성을 지닌 자들을 위한 징표들이 있노라. 그들은 서서, 앉아서, 그리고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들과 땅의 창조를 숙고하더라. ‘우리의 주님! 당신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이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러니 불(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꾸란 3장 190-191절

읽어라

생각하라

배워라

관찰하라

탐험하라

상기하라

“그리고 대지에는 굳건히 믿는 자를 위한 징표가 있다. 그대들 자신에게도 징표가 있으니, 그대들은 보지 않겠는가?”

꾸란 51장 20-21절

우들에게 인류의 안녕을 위해 지식을 활용해야 하지만 반대로 지식을 악용하여 세상에 해악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지식의 탐구는 창조주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일로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무슬림에게 권장되는 행위이다.



“누가 옳은 길에서 지식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라.”

티르미지가 전함 (Sahih Muslim, 8/71, 2699)

수세기동안 무슬림 학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과학의 선두주자였다. 꾸란의 언어인 아랍어가 대학교에서 화학, 수학, 미적분학, 의학, 철학, 지리학, 공학, 미술과 문학 등을 가르칠 때 사용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서구문명이 주로 이슬람문명에 힘입어 발달했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이슬람문명이 없었다면 서구문명은 오늘날의 과학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p>게베르 Geber 화학의 아버지</p> <p>721-815년</p>	<p>유럽에서는 '게베르(라틴어: Geber)'로 알려진 '자비르 이븐 하이안(Jaber Ibn Hayyan)'은 저명한 무슬림 박사가로 화학자이자 천문학자, 기술자, 지구과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약사, 의사였으며 근세 화학의 아버지이자 근세 약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초산·황산·황수 등 많은 산을 최초로 발견했다.</p> <p>또한 증류·승화·용해·여과·결정 등의 화학 조작 등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그의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의 화학 및 연금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p> <p>화학역사가 '함야드(Erick John Holmyard)'는 자비르의 업적에 대해 연금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실험과학으로 발전시킨 데 있다고 평가했다.</p>
<p>알고리즘 Algoritmi 대수학의 아버지</p> <p>780-850년</p>	<p>수학자인 동시에 천문학자, 지리학자였던 '무함마드 이븐 무사 알파리즈미(Mohammad Ibn Musa Al-Khwarizmi)'는 인도에서 발달한 십진법과 아라비아숫자 표기법(0,1,2,3,...)을 아랍세계에 들여와 널리 대중화시켜 계산 방식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으며 대수학(algebra)과 알고리즘(algorithm)은 그에 의해 유래되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그의 이름에서 생겨났으며 대수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알제브라(Algebra)'는 그의 저서 <Al-Jabr wa al-Muqabala>로부터 기원한다.</p> <p>그가 쓴 '집합과 분할의 서'라는 논문이 12세기 '인도 숫자'에 대한 프리즈미의 서'란 제목 아래 라틴어로 번역됨으로써 유럽인들은 처음 영(숫자 0)을 포함한 숫자개념을 알게 된다. 숫자에 얽힌 사연에 무지한 유럽인들은 아랍인들에게서 전수받은 이 인도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오인해 16세기 전통적으로 써오던 로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대체해버렸다.</p>

로마 숫자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아랍어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아비센나

<p>라제스 Rhazes 또는 라지스 Rasis 의학의 아버지</p> <p>865-929년</p>	<p>많은 학자들에 의해 의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되는 '아부 바크르 무함마드 이븐 자카리아 알-라지(Abu Bakr Muhammad Ibn Zakariya Al-Razi)'는 소아학의 선구자로서 흉역과 천연두를 소개하고 임상적으로 판별하는 것을 기술하였다. 그는 의학뿐만 아니라 철학, 천문학, 연금술에도 박학다식하여 총 200여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그중 의학서만 117권이다. 주요 저서로는 종합 의학서인 '의학 대전(Kitab al hawi)'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와 인도의 지식 및 자신이 얻은 지식을 근거로 한 '대의학사전'이다. 그의 많은 의학전서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 의학교의 교과서로 채택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p>
<p>아비센나 Avicenna 근대의학의 아버지</p> <p>980-1037년</p>	<p>'아랍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불리는 '아부 알리 알 후세인 이븐 시나(Abu Ali Al-Hussein Ibn Sina)'는 오늘날에도 중세 서양에 가장 큰 학문적 영향을 준 인물로서 '아비센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슬람권 내에서는 '셰이크 알 라이스(학문의 왕)'라고 불린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책은 200편 정도로 철학, 의학, 수학, 천문학, 종교학 등 거의 모든 학문분야가 그의 손으로 쓰였다. 그는 방대한 철학과 과학 백과사전인 '치유의 책(Kitab Ash-shifa, 전 18권)'과 7세기동안(18세기 초까지) 유럽의 많은 중세대학에서 표준 의학 교과서로 사용된 '의학전범(Ai Qanun Fi-Tibb, 전 5권)'을 저술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p>
<p>알자자리 Al Jazari</p> <p>1136-1206년</p>	<p>* "천재적 기계장치 지식에 관한 책"이란 저서로 유명한 이슬람 학자 '아불 이즈 이스마일 알 자자리(Abul-iz Bin Ismael Al-Jazari)'의 저서에는 50개가 넘는 기발한 기계장치들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물을 끌어 올리는 장치, 물시계, 양초시계, 자동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기계, 물 분배기 그리고 물레방아의 회전 운동을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전환시켜서 강력한 힘으로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펌프가 묘사되어 있다.</p> <p>그는 또한 커다란 "코끼리 시계"를 발명한 학자이기도 한데 이 시계는 최초의 프로그래밍 작동이 가능한 아날로그 컴퓨터이다. 알자자리는 자신이 발명한 이 시계와 다른 자동 기계 장치들로 인해 "로봇 공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p>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슬람은 건전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정신을 맑게 해주거나 몸에 생기를 북돋아주고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주는 운동이라면 적극 권장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신체단련을 위해 교우들에게 달리기, 수영, 활쏘기, 말타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교우들과 함께 달리기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운동은 인간에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행복을 부여한다.(Abu-Dawoud, 2/334, 2578. Ibn-Majeh, 3/149, 1979)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의 아내 아이샤와 함께 달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아내인 아이샤가 그를 앞질렀고 다음에는 예언자가 아내 아이샤를 앞질렀다. 이러한 활동은 예언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 사랑과 결속을 강화시키고 행복한 결혼생활이 지속되도록 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의 성원 서쪽 편에 위치한 한 곳을 경기장으로 만들었다.

9222

사회적 가치

사회생활의 개선

서로를 사랑하도록 격려한 예언자 무함마드^{SAW}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맹세하니 너희 중 누구든 믿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너희들 상호간에 이슬람식 인사(살람)를 나누도록 하라.”
(Narrated by Muslim 54)

그리고 그는 말씀하기를, “만일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형제를 위해서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믿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Narrated by Muslim 2699)

그는 또한 말씀하기를, “누가 형제(자매)의 고통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후 심판의 날에 그의 고통 중 하나를 덜어주실 것이니라. 그가 형제(자매)를 도와주는 한 하나님께서도 그(그녀)를 도와주실 것이니라.”
(Narrated by Muslim)

‘인사’는 평화의 전달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무슬림) 형제(자매)를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과 같은 어떤 선행이라도 작게 생각하지 말라.”²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하는 자)가 먼저 인사를 할 것이다.”³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라.”⁴



“형제(자매)를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것도 자선이니라.”

예언자 무함마드^{SAW}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인사한 예언자 무함마드^{SAW}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하였다. 약속할 때 상대가 손을 풀어주지 않는 한 자기의 손을 먼저 풀지 않았다.

고상한 유머 감각을 가졌던 예언자 무함마드^{SAW}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낙관적이고 명랑한 성격을 지녔으며 그와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호감이 가는 존경할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하였다. 여러 번 그는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게 농담을 하였는데 그의 농담에는 절대로 거짓말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 때 당시 달리기는 사람들이 자주하는 공동의 놀이 활동이었는데 예언자 무함마드^{SAW}도 그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 놀이를 즐겨하였다.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한 고상한 유머

어느 날 나이가 많은 한 여성이 예언자를 찾아와 ‘오, 하나님의 예언자 시여! 하나님께 저를 천국에 들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예언자가 말씀하기를, ‘오, 누구 누구의 모친이여! 나이 많은 여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언자의 이 말씀을 들은 나이 많은 여성은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는 그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나이 많은 여성에게 알리시오. 노년의 여성들은 늙은 나이가 아닌 젊은 나이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

친구들에게 한 고상한 유머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눈이 아픈 상태로 대추야자를 먹고 있는 수하이브 알루미의 기운을 북돋워주려고 ‘눈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대추야자를 먹느냐?’고 말씀하자 수하이브는 예언자가 농담으로 말한 것임을 알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입의 오른쪽으로 (아프지 않은 오른쪽 눈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미소를 지었다. (Al-Hakim, 4/411, 8357. Ibn-Majeh 4/500, 3443)



아나스 본 말리키가 전하기를, 한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와서 탈 수 있는 낙타 한 마리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낙타의 새끼를 주겠다.’ 이에 그 남자가 묻기를, ‘낙타의 새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탈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모든 낙타들이 암낙타의 새끼가 아니더냐?’⁵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핀 예언자 무함마드^{SAW}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아이들이 있는 곳을 지나면 그들에게 인사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였다. 어느 날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기르던 새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어린 아이를 발견하자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한동안 그 아이의 곁에 있어주었다.⁶ (Sahih Al-Bukhari, 8/30, 6129. Muslim 6/176, 2150)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뽐뽐하거나 께안아주도록 하였고 항상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권고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자녀에게 입맞춤하지 않는 아버지는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 예언자 무함마드^{SAW}: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불친절한 유대인 이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병에 걸리자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를 병문안하였다. 그로 인해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향한 그 유대인 이웃의 마음은 온화하게 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또한 그의 일을 도와주던 유대인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 아이를 병문안하였다. (Sahih Al-Bukhari, 2/94, 1356)

네 이웃에게
친절하라

이웃을 친절히 대할 것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말씀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충고하기를 이웃이 나의 상속자들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이웃에게 잘하라고 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최후 심판의 날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에게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Sahih Al-Bukhari, 8/10, 6015)

그는 그의 교우 아부 자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 아부 자르! 네가 수프를 준비할 때는 그 안에 물을 많이 넣어라. 그리고 너희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Sahih Muslim, 8/37, 2625)

사회의 악습을 폐지시킨 예언자 무함마드^{SAW}: 그는 선량한 도덕적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께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을 받는 이가 될 것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말씀하기를,

“서로를 질투하지 말라. 서로를 증오하지 말라.

서로에게 형제(자매)가 되어라.”⁷

“무슬림은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불경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저속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라.”⁸

조롱이나 중상모략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였다.

“오, 믿는 사람들이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여성이 다른 여성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상하는 것과 저속한 별명도 아니되느니라. 믿음을 가진 다음의 저속한 이름은 사악한 것이며 회개하지 아니한 자 실로 죄인이나.” 꾸란 49장 11절

나쁜 의견, 사악한 의식, 험담은 없어야 한다:

“오, 믿는 사람들이여!

대부분의 추측을 피하라. 실로 일부 추측은 죄라.

그리고 서로를 몰래 감시하지 말며 그대들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말라.

그대들 중의 누가 죽은 자기 형제의 살코기를 먹길 원한단 말인가?

그대들은 그것을 혐오할 것이라. 그리고 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뉘우치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분이시며

가장 장애로우신 분이시라.” 꾸란 49장 12절

잘못된 소식은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오, 믿는 사람들이여!

사악한 자가 너희에게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소식을 확인하라.

이는 너희가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함이니라.” 꾸란 49장 6절

이슬람의 예절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인간 서로 간의 예절을 중요시 하였다. 그는 교우들에게 사람들을 대할 때 예절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예절은 예언자의 관행(순나)의 일부라고 말씀했다.



꾸란의 많은 구절들에도 친절과 좋은 품성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고함이나 악취 등)는 천사들까지 불편하게 한다고 말씀하였다. 다음은 이슬람식 예절에 대한 일부 내용이다.

- 말할 때 큰소리를 자제하고 걸을 때 오만한 태도로 걷지 말라.
- 환자를 방문 시 오래 있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 마스지드(masjid: 이슬람성원)에 갈 때는 향수를 뿌려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라.
- 양파나 마늘을 먹었을 경우 입에서 나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한 후에 마스지드에 가라. 또한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냄새나 행동(트림 등)을 피하도록 하라.



- 사람들과 함께할 때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라.
- 사람을 그의 이름 또는 그가 좋아하는 별명으로 불러라.
- 하품을 할 때는 입을 손으로 가리라. 재채기 한 사람에게서는 자비를 구하는 대답을 하라.
-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사용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좋은 말'은 이슬람에서 자선으로 여겨진다.
- 부모를 고운 말로 대하고 부모를 멸시하거나 저항하지 말라.
- 아이들이 특정한 시간에 부모의 방에 들어갈 때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 사람들에게 물을 줄 때는 본인이 마지막에 마셔야 한다.
- 식사초대를 받아 음식 앞에 앉았을 때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음식부터 먹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한다.
- 물을 마실 때는 컵 안에 대고 숨을 내쉬지 말라. 마실 물에 세균이 침투하게 된다.

여성에 관한 예절

이슬람에서 남성들은 여성이 지나갈 때 눈을 아래로 하여 그녀를 쳐다보지 말아야 하며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보지 말아야 한다.

아나스 본 말리크가 전하기를,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의 아내 사피야가 낙타에 탈 수 있도록 무릎을 구부렸고 그녀도 예언자의 무릎을 밟고 낙타에 올라탔다.

부카리가 전함 9/20

타인의 의견을 존중했던 예언자 무함마드^{SAW}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을 경우 합법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면 이 둘 다를 받아들였다.

자트 알-살라셀 아므르(That Al-Salassel) 전투에서 무슬림군대의 소령인 아므르 이븐 알-아쓰(Amr bin Al-'Aas)가 몽정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추운 날씨에 찬물로 구슬(Ghusl:전체세정: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온 몸을 물로 씻는 행위. 몽정을 했을 때 구슬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신에 타암움(대체 세정: 물이 없거나 추운 겨울에 찬물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깨끗한 흙 또는 벽돌, 돌, 모래 따위로 세정을 하는 행위)을 하고 예배를 인도했다. (Al-Hakim, 1/177, 634. Abu-Dawoud 1/132, 334)

예언자의 교우들이 메디나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를 찾아 이 사건을 알렸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아므르 이븐 알-아쓰에게 왜 물로 몸을 씻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 날 밤은 몹시 추워서 찬물로 몸을 씻었다면 감기에 걸릴 것이며 군대를 인도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이를 인정해주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현실적이고 대하기 편한
사람이었다

아나스 본 말리크가 전하기를, “저는 예언자와 10년 동안 함께 하였는데 그는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지도 않았고 제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Al-Tirmidhi, 3351)

‘자문회’ 구성의 중요성: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예언자인 동시에 한 분의 인간으로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그의 교우들과 부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만 명도 넘는 메카 불신자들의 군대가 메디나를 향해 진격해왔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페르시아인, ‘살만’의 충고에 따라 무슬림들은 방어막으로 메디나 도시 주변에 넓은 참호를 팠다. 참호를 판다는 것은 독특한 생각으로 당시 아라비아에서는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던 방법이었다. 더군다나 이 생각은 평범한 한 사람에 의해 주장된 것이었다. 그러나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많은 무슬림들도 이에 대해 합의했다. 그들은 메디나 주변에 4.6m 넓이로 5.5km 길이의 참호를 팠다.

바드르 전투에서 한 평범한 병사가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예언자시여! 만일 군대 막사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다른 곳에 세워도 됩니까?’ 그 병사가 군대를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다른 무슬림들은 그의 생각에 합의하여 그렇게 하였다.

서예가 파르드 알-알리의 ‘무함마드’ 서예작품.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와 평화로운 공존:

이슬람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궁극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일부 원칙을 마련해놓았다. 이를 통해 서로간의 의심, 증오나 적대심, 오해 등의 원인을 제거하고 이슬람의 메시지를 바르게 알리고 다른 신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력과 융화력이야말로 이슬람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Sahih Al-Bukhari, 2/85, 1312. Sahih Muslim, 3/58, 961)

이슬람력 10년째 해인 632년에 예멘에 있는 나즈란(Najran)지역에서 기독교 성직자들을 포함한 60명 정도의 대표단이 메디나에 왔는데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그들 간에 대화가 길어져 기독교 성직자들이 마스진(이슬람성원) 안에서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자 예언자^{SAW}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들은 동쪽을 향하여 예배드렸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언자^{SAW}는 그의 교우들에게 “그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두어라.”라고 말씀하였다.

종교간
대화

하나님께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지혜와 훌륭한 설교로써 그대 주님의 길로 초대하라.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써 그들과 논하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길을 벗어난 자와
바른 길로 가는 자를 알고 계시니라.”

꾸란 16장 125절

“성서의 백성들(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인도함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되 논쟁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 중에 사악함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말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믿노라.
우리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이니라.”

꾸란 29장 46절



서예가 핫산 첼레비(Hasan Celebi)의 아랍어 서예작품.

“가장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



꾸두스(예루살렘)에 소재한 '우마르 이슬람성원'과 '성묘교회'

고대 꾸두스(예루살렘)에서는 수세기동안 종교적 관용의 훌륭한 예가 유지되고 있다. 이슬람국가의 두 번째 칼리파였던 우마르가 638년에 피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꾸두스(예루살렘)를 정복했다.

예루살렘의 대주교 소프론티우스(Sophronius)는 우마르가 예배를 드리도록 성묘교회로 초대했다. 성묘교회는 동방교회에서는 부활 기념 성당(Church of the Resurrection)이라고도 하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의 옛 도시 안에 있다. 이곳 유적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시신이 묻혔던 곳, 즉 무덤이라



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골고타(해골 터)로 기념된다. 이 교회는 예수가 부활한 장소로 소문나, 적어도 4세기부터 기독교 성지 순례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우마르가 성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이슬람에서의 관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좋은 예이다.

“만일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무슬림들이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곳을 이슬람성원으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마르는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의 행동은 이슬람이 다른 종교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종교임을 증명해주었다. 또한 이것은 이슬람국가에 거주하는 비무슬림들이 자유롭게





우마르의 서약서

우마르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평화와 보호의 서약서를 수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마르의 서약서”라고 불린다. 이 서약서는 수세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성원 벽에 걸려 있다.

우마르의 서약서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서약서는 하나님의 종이자 믿는 자들의 지도자 우마르가
 일리아(예루살렘) 백성의 평화와 보호를 보증하는 것이다.
 우마르는 그들의 몫과 재산과 교회와 건강한 자와 환자
 그리고 모든 종교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보증을 체결한다.
 그들의 교회를 차지하지도 부수지도 않을 것이며
 일부나 전체를 제거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 어떠한 강제적 행위도 없을 것이며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일리아 백성은 (무슬림들이 회사하듯이)
 지지야(인두세)를 내야 한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됨을 알게 해 준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우마르가 예배를 드린 곳에 이슬람성원이 세워졌다.(이 성원은 후에 '우마르성원'이라고 불려졌다.)

칼리파 '우마르'가 예언자의 교우였던 우바다 본 알사미트를 꾸두스(예루살렘)의 최초의 무슬림 판사로 임명했을 때 그에게 성묘교회의 관리를 명령하였다. 우바다는 658년에 사망 후 바이틀 마끄디스(아끄사 성원)의 남쪽에 있는 '자비의 문(Bab al-Rahma) 묘지에 매장되었다.



상도(商道)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사기, 비윤리적 거래, 거짓, 독점, 착취 등을 비판하고 이슬람의 가치를 바탕으로 무역을 하도록 격려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우리를 기만하는 자는 우리의 구성원이 아니니라.” 무슬림이 전함

“하나님께서서는 물건을 팔 때 관용하는 자와 물건을 살 때 관용하는 자, 그리고 (정당한) 납부를 요구하는 자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니라.” 부카리가 전함 2076/16

거짓말하는 것과 약속을 어기는 것은 위선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네 가지의 버릇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완전한 위선자이니라.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자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위선자의 부류에 속하느니라.

위선의 네 가지 특징은

- ❶ 믿으면 배반하는 것,
- ❷ 말만 했다하면 거짓말하는 것,
- ❸ 약속하면 위반하는 것,
- ❹ 말싸움을 했다하면 헐뜯고 욕하는 것이니라.”

위선
금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메디나로 이주한 얼마 후 고우들에게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자유무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았는데 그 시장을 ‘마나카(Manakha)’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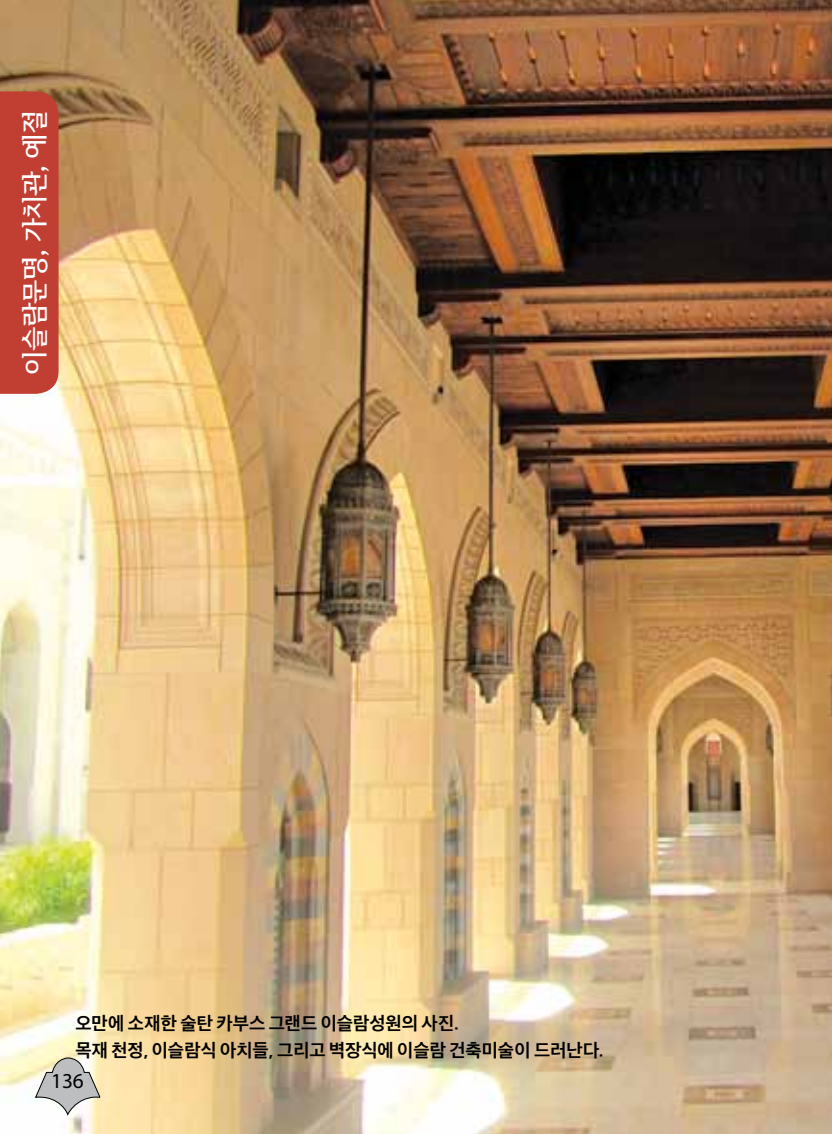


아래 사진은 14세기 전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자유무역을 독려했던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의 모습이다.



현재의 메디나 시장 중 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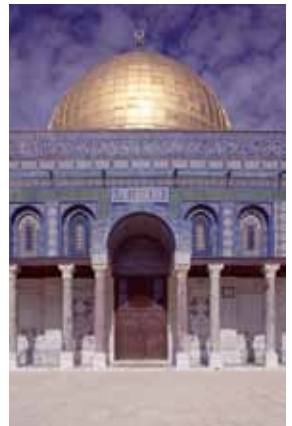
현재 마나카의 울타리



오만에 소재한 술탄 카부스 그랜드 이슬람성원의 사진.
목재 천정, 이슬람식 아치들, 그리고 벽장식에 이슬람 건축미술이 드러난다.

말미의 주석

- 1 Riyadh Al-Salihin (183/3), (245/2), Sahih Al-Bukhari (13)
- 2 Riyadh Al-Salihin (121/5)
- 3 Riyadh Al-Salihin (858/2)
- 4 Sahih Al-Bukhari (11)
- 5 Sahih Al Albani, Abu Dawood, Emam Ahmed and Trimithi
- 6 Riyadh Al-Salihin (862/1), Bukhari (598/10)
- 7 Riyadh Al-Salihin (1591/1), Sahih Al-Bukhari (6065)
- 8 Riyadh Al-Salihin (1734/1) (1738/3)



쿠두스(예루살렘)에 소재한 바위의 돔 | 사진, 피터 샌더스(Peter Sanders)



터키 이스탄불에 소재한 블루 모스크



여성의 권리

이슬람 이전 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시민권이 없었다. 거친 사막에 거주하며 명예를 중시하는 유목민들에게 딸이란 연약하기만 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순결이라도 잃게 되면 부족 전체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따라서 갓 태어난 여아들을 생매장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성(性)차별은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이들을 성별로서 차별하는 것을 규탄하고 그의 교우들에게 아이들을 성별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올바르게 키워야 함을 강조했다. 사실상 여자 아이들의 경우에 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말씀하기를,

“여성은 마치 남성의 한 부분과 같으니라.” (Tirmithi, 1/154, 113)

이슬람에서 여성은 '상속권'을 가진다: 이슬람 이전에 여성은 상속권을 갖지 못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관습을 폐지하여 여성도 남성처럼 상속권을 보장받도록 하였다.



예술적 대칭으로 쓰인 "무함마드"라는 아랍어 단어. 원래 이 단어는 **محمد**와 같은 형태이다. "무함마드"라는 단어의 첫 부분에 "M"과 "H" 글자와 마지막 부분에 "M"과 "D" 글자는 서로 대칭을 이룬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독특한 정체성을 갖는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다. 여성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姓)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서 여성은 보호를 받는다. 여성의 재산은 이슬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된다. (이슬람 이전에는 상속권이 남성에게만 있었으며 여성은 하나의 재산처럼 취급하였다.)



여성은 성적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이슬람은 성매매와 간음을 금지한다. 예언자 무함마드 SAW는 말씀하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성관계를 저지른다면 그에게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느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불법적인 성관계에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그것은 추악한 행위이며 사악한 길이니라.”

꾸란 17장 32절



이스마일 하끄(Ismail Hakki)의 서예 작품.
“지혜의 꼭대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히잡(Hijab: 이슬람여성의 옷차림을 통틀어 가리킴)’과 ‘겸손’: 하나님께서는 꾸란을 통해 모든 무슬림여성에게 머릿수건을 써서 머리부터 가슴까지를 가리고 정숙한 옷을 입을 것을 명령하셨다. 그것은 모든 무슬림여성에게 의무이다. 물론 남성에게도 의복에 대한 규정(배꼽부터 무릎까지를 반드시 가려야 한다)이 있어 남성도 정숙함을 유지해야 한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그 분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 해서 자신을 온갖 해악으로부터 보호한다.

사람들은 이슬람이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라고 오해하는데 오히려 이슬람처럼 여성을 완전히 ‘보호’하는 종교는 없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매력은 TV광고나 패션, 연예계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경향이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야기시키며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미디어에 인간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슬람에서 히잡에 대한 가르침은 성희롱, 성폭행, 강간, 성병, 낙태, 포르노그래피 등을 차단하여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슬람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금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건전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결혼’을 독려했다. 그는 무슬림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성관계를 멀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 젊은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찾아와 자신이 하고자하는 성관계(불법적인)의 허락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에게, “너는 누군가가 너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을 좋아하겠느냐?”라고 물었다. 그 젊은이가 답하기를, “아닙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가 그들의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너는 누군가 너의 딸, 너의 여동생, 너의 이모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 젊은이가 매번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유사한 대답을 하였다.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도 누군가가 그들의 딸, 여동생, 이모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니라.”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손을 그 젊은이의 가슴에 대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다.

“오, 하나님이지시여!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정화시켜주시고 순결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여성에게 권한을 준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교육받아

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매주 여성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그룹별로 가르쳤다. 여성들이 축제나 예배 등 이슬람의 종교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녀들조차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충고와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슬람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남성과 똑같이 여성에게도 공식명세를 요청했다. 이는 곧 여성이 무시되지 않고 권리가 존중되었음을 증명한다.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지식의 추구는 모든 무슬림에게 권고된 사항이며 이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지식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뜻한다.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성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을 저지하는 이슬람의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슬람은 여성에게 상속권, 투표권,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발언권,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녀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나 남자 형제나 남편에게 그러한 권리들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꾸란과 하디스에 명시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의무 때문이다.

딸을 잘 보살피는 것의 중요성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여성을 잘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성은 매우 섬세한 존재라 “부서지기 쉬운 유리”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교우들에게, “누군가 딸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인으로 키운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¹ 고 언급했다.



이슬람에서 이혼

이슬람에서 이혼은 허용되지만 결코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만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평화롭고 원만하게 이혼하도록 허용한다.³

“아내와 이혼을 하고 법정기간을 채웠을 때 그녀들에게 돌아오거나 또는 그녀들을 자유롭게 하여 줄 것이며 그녀들을 괴롭히기 위해 또는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 그녀들에게 돌아오지 말라. 그것을 위반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우롱한 것이니라.”

꾸란 2장 231절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아내를 향한 사랑: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의 아내 카디자가 사망하고 2년 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부 바크르의 딸 '아이샤'와 결혼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이샤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항상 정직했다. 어느 날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교우 중 아무르 본 알아스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답했다. “아이샤입니다.” (Al-Bukhari, 5/5, 3662)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의 필요성: 아이샤가 전하기를,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녀를 향한 사랑을 단단한 매듭에 비유하였다. 아이샤가

어머니는 깊은 존경의 대상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자궁 안에서, 품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죽는 순간까지 사랑으로 보호한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와서 말했다. “사람들 중 누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언자^{saw}가 말씀하기를, “당신의 어머니이다.” 그가 다시 묻기를,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예언자^{saw}가 답하기를, “그 다음도 당신의 어머니이다.”



그 남자가 계속 물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예언자^{saw}가 대답하기를, “그 다음도 당신의 어머니이다.” 그 남자는 다시 물어보았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예언자^{saw}가 대답하기를, “그 다음은 당신의 아버지이다.”² (Sahih Al-Bukhari, 2/8, 5971. Muslim, 8/2, 2548)

이슬람학자들은 위의 하디스에 관하여 어머니는 (1)임신, (2)출산, (3)모유수유 이 세 가지의 고통을 겪으므로 위대한 존재라고 해석한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권고하길,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만약 아내의 성품들 중 한 가지를 싫어한다면 그녀의 다른 성품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슬림은 보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중 가장 좋은 사람은 아내에게 잘하는 사람이니라.” (Tirmithi, 6/188, 3895)

이 말씀은 이슬람에서 '아내'라는 존재를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보여준다.

예언자 무함마드_{SAW}와 일부다처

일부다처를 제시한 것은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아니다:

사실상 일부다처는 이슬람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남성이 한 명 이상의 여성을 아내나 첩으로 또는 노예로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⁴

예언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은 '사라'(이삭의 어머니)였고 두 번째 부인은 '하갈'(이스마엘의 어머니)였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 아곱은 아내 2명, 첩 2명으로 총 4명의 여성과 결혼했다.⁵

단 한 명의 아내와 25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한 예언자 무함마드_{SAW}:

예언자 무함마드_{SAW}는 그의 나이 25살에 카디자와 결혼하여 2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두었으나 그 중 아들 2명은 어려서 세상을 떠났다. 후에 카디자가 사망한 후 예언자_{SAW}는 가난하고 나이든 과부 '사우다(Sawda)'와 결혼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무슬림들이 메카 불신자들의 박해로 인하여 처음으로 이주한 국가인) 아비시니아에서 돌아온 후 죽은 사람이었다. 그가 사우다와 결혼한 이유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명예를 수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예언자_{SAW}는 거의 50살이었고 사우다는 그보다 나이가 더 많았다.

충실한
남편이 되라

때때로 예언자 무함마드_{SAW}에게 '매듭이 어떻습니까?'라고 묻곤 했는데 예언자 무함마드_{SAW}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매듭은 예전처럼 단단히 묶여 있소."라고 답했다.

예언자 무함마드_{SAW}는 아이샤에게 그의 (세상을 떠난) 첫 번째 부인 카디자의 친구들에게 음식을 차려 보내도록 요청하였고 그녀는 항상 카디자의 친구들을 위해 양고기를 요리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아이샤에게 "그녀의 시대에서 여성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은 카디자였다. 내가 첫 계시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녀는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나를 위로하고 자신의 재산으로 나를 지원했다."고 말씀했다.

그는 여러 번 결혼했으나 아부 바크르의 딸인 아이샤를 제외한 그의 모든 아내들이 주로 죽거나 순교한 무슬림들의 부인들 즉, 과부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첫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아내였던 카디자에 대한 특별한 추억과 자리가 남아 있었다.



꽃 형태로 보이도록 디자인한 아랍어 "무함마드",
파리드 알-알리(Farid Al-Ali) 작품.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아부 바크르의 딸과 결혼: 몇 년 후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아부 바크르의 딸 '아이샤'와 결혼했다. 그 결혼은 아부 바크르와 아이샤에게 큰 영광이었다.



두 번째로 가장 친한 친구 우마르의 딸과 결혼:

2년 후 우마르의 딸 '하프사(Hafsa)'의 남편이 우후드 전투에서 순교하자 그녀는 과부가 되었다. 우마르는 그의 친한 친구들 중 누군가가 그의 과부가 된 딸에게 청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무도 청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녀에게 청혼했으며 그 결혼은 우마르와 그의 딸 하프사를 보살피기 위한 것으로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었다.



적의 딸(무슬림 과부)과 결혼: '움 하비바(Um Habibah)'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그녀의 이름은 '람라(Ramlah)'였다. 그녀는 메카 불신자들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인 아부 수피안의 딸이었는데 아부 수피안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20년 동안이나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상대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딸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최초의 무슬림들 중 한 명으로 남편과 함께 아비시니아로 이주하고 약 15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그녀의 남편이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곳에서 사망하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비시니아에서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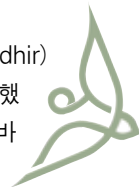


자가 된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여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결혼했다. 놀랍게도 1년이 지난 후 그녀의 아버지(아부 수피안)가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3. 유대인

유대인 부족 출신 여성 '사피야'와 결혼:

유대부족들 중 하나였던 바니 알나디르(Bani Al-Nadhir) 부족은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배신하고 그에게 반대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들이 사는 카이바르(Khaybar)성을 포위 공격했다.



사피야(Safiyya)는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 중 지도자의 딸이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녀를 풀어주어 청혼했고 그녀도 청혼을 받아들여 예언자와 결혼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유대인 출신 여성과 결혼한 것은 이슬람이 어떠한 민족도 증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피야는 예언자^{SAW}가 충실하고 자애 깊은 분이었다고 증언했다.

(Tirmithi, 6/188, 3894. Musnad Ahmad, 5/2609, 12587)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여성'과 결혼:

같은 해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기독교인 이집트 통치자에게 이슬람으로 초대하는 전령을 보냈다. 이에 이집트 통치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여러 선물들, 한 명의 의사, 그리고 "마리아(Mariya)"라는 이름의 여종을 보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마리아와 결혼하여 둘 사이에 "이브라힘(아브라함)"이란 아들을 두었으나 이브라힘이 어린 나이에 사망하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깊이 슬퍼하였다.⁶

일부다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예언자 무함마드^{SAW}:

꾸란이 계시되기 전에는 일부다처에 대한 제한이 없었기에 많은 남성들은 수십 명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슬람은 일부다처를 허용하되 아내의 수를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한다. 그러나 일부다처는 규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허락되는



예외사항일 뿐이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허용은 되지만 의무사항도 아니며 권장되는 사항도 아니다.

각각의 아내들에게 모든 면에서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남성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다. 꾸란 4장 3절은 남성이 아내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없다면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 무함마드^{SAW}도 아내의 수를 제한하다:

일부다처를 제한하는 꾸란 구절이 계시되기 전까지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첫 번째 아내와 25년 동안 결혼생활한 것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으며 또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여성들만이 예언자^{SAW}의 아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꾸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아내들을 허용하셨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아내의 수를 4명까지로 제한한 꾸란 말씀이 계시됨과 함께 예언자에게도 그 율법이 적용되었다. 즉,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아내들 중 어느 누구와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어떠한 여성도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⁷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아내들에 대한 제한: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세상을 떠난 후 어떤 무슬림도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아내들과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은 '믿는 자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꾸란에서 예언자의 아내들이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다고 묘사하셨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아내들은 모든 무슬림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로 '믿는 자들의 어머니들'로 여겨진다.

믿는 자들의 어머니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결혼은 모두 고귀한 목적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었다.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 다거나 결혼을 생각하기보다 우상숭배가 판을 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대해 고뇌하던 진실한 젊은이 무함마드^{SAW}에게 먼저 청혼을 한 것도 아이가 딸린 40세의 미망인 카디자였다.

카디자의 배경이나 외관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만을 헤아린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젊은 날들을 그녀와 함께 했으며 그녀가 세상을 떠난 얼마 후에 몇 번의 결혼을 하였지만 이것은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그의 결혼들은 여성들에게 이슬람을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와 결혼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전 남편으로부터 생긴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분들이었다.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했던 시기는 이미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나이가 많고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던 때였으며 결혼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미의 주석

1. 티르미지가 전함. 다른 전언에 의하면 예언자^{SAW}가 그의 교우들에게 누군가 딸 1명, 2명 또는 3명을 보살피고 키우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결혼시킨 후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지속적으로 베푼다면 그(그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다.
2. 꾸란의 많은 구절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예, 꾸란 17장 23절)
3. 또한 꾸란 2장 229-232절 참조.
4. 다른 종교들은 초기에 일부다처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 힌두교도 이에 포함된다. 그런데 1954년부터 힌두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결혼 제약이 법으로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힌두 성서가 아닌 '인도법'에 의해 힌두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제한된다.
5. 예언자 아랍의 가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2:22-24를 참고.
6.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며 그의 교우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로서 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교우들에게 "눈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은 슬퍼하지만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실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고 말씀했다.
7.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아내들에 대한 내용은 꾸란 33장 50, 51, 52절을 참조.



“오, 사람들이여!
실로 우리(하나님)는
너희를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창조하였으며
너희가 서로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민족과 부족을 만들었느니라.
너희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은
그분(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니라...”

꾸란 49장 13절



자유, 정의, 보호

이슬람에서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자신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선언했다. 그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세상에 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로 그것을 믿게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꾸란 구절들을 암송했다.

“주님의 뜻이 있었다면 지상에 있는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으리라 그대는 강요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느냐?”

꾸란 10장 99절

“종교는 강요받아서는 아니 되니라. 진리는 암흑으로부터 구별되노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아줄을 잡은 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꾸란 2장 256절

평등과 윤리

이슬람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에 대한 우열의 기준은 훌륭한 품성과 신앙심의 정도에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¹



“너희들의 주님은 한 분이시며 인류 모두가 아담 한 사람의 자손이나라. 그리고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느니라. 아랍인이 비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아니며 비 아랍인이 아랍인보다 우월하지 않느니라. 우열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느니라.(경외심은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Riyadh Al-Salihin (1604/5)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노예해방을 격려하고 노예제도를 해체시키는 이슬람의 규정을 소개했다

노예제도는 예언자 무함마드SAW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사실상 이것은 세계의 여러 사회체제에 존재한 것이었다.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었던 노예들은 이슬람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은 이슬람이 개인의 사유재산보호를 규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부 이슬람법을 위반했을 경우 그것을 만회하는 방법들 중 하나는 소유한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누군가의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노예를 학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죄로 간주되어 이것에 대한 회개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² 이 방법은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실행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무슬림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키기를 격려하며 이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큰 숭배행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어느 날 예언

자 무함마드SAW가 아부 마스우드 알바드리라는 사람이 회초리로 노예를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노예에 대한 권리는 당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니라.” 아부 마스우드가 진정하여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 노예를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SAW가 말씀하기를, “만일 당신이 그를 해방시키지 않았다면 지옥의 불은 당신의 얼굴을 태웠을 것이니라.”³ (Sahih Muslim, 5/91, 1659)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10만 명이 넘는 무슬림 앞에서 고별연설을 했다.

“오, 사람들이여! 모든 신앙인들은 서로에게 형제이니라. 형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소유함이)허용되지 않느니라. 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사실에 증언자가 되어주소서.

나 이후에 불신에 빠지지 말라. 서로를 살해하지 말라.

나는 여기에 2가지를 남기고 떠나느니라. 그것은 바로 꾸란과 순나(Sunnah: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관행)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따른다면 결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니라.

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사실에 증언자가 되어주소서.” (Al-Hakim, 1/93, 317. Al-Bayhaqi, 6/96, 11640)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사람들에게 샤리아 법 즉, 인간의 삶과 서로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고 가르쳤다. 돈이 많거나 사회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심지어 자신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그의 사랑하는 딸 파티마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⁴

정의로운 재판: 토마흐(To'mah)와 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토마흐 본 우바이리그라는 한 아랍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시대에 메디나에서 방패 하나를 훔친 이야기가 있다. 토마흐는 어떤 유대인 남자의 곁에 그 방패를 숨겨 두었고 방패를 잃어버린 주인은 자신의 방패가 유대인의 곁에 있음을 발견하고는 그 사건을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호소하였다. 예언자^{SAW}가 유대인으로부터 방패에 관해서 그리고 그 방패를 갖고 온 남자의 이름(토마흐)에 대해서 듣게 되자 예언자^{SAW}는 방패를 갖고 왔다고 신고된 토마흐를 법정에서 출석하라 하였다. 그러나 토마흐는 유대인의 진술을 부인하였으며 차차 토마흐에게 불리한 증거는 하나도 없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이 자신의 진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예언자^{SAW}는 유대인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판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다. 즉, 증거가 없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토마흐 부족 사람들은 예언자^{SAW}가 토마흐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예언자^{SAW}에게 물려가 자기 부족 사람의 이익을 위해 유대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주십사 부탁했다. 그리고 유대인은 무슬림이 아니니 정의의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언자^{SAW}는 그들의 압력으로 그들 편에 서는 것을 혐오하며 요구에 불응하였다. 결국 예언자^{SAW}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확실히 우리는 그대에게 진실의 성서를 계시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계시하신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판결을 내리라.
반역을 꾀하는 자들을 위해 중재하지 말지어다.”

꾸란 4장 105절

그리하여 예언자^{SAW}는 유대인에게 무죄를, 토마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판사가 누군가에게 유죄를 판결할 때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여라도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는 사례다.

여성인권보장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의 고별연설에서 여성인권보장을 재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오, 사람들이여!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아내도 남편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신임하시어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네들을 아내로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남편의 동반자이며 헌신적인 조력자인 아내에게 친절히 잘 대하도록 하라.” (Sahih Al-Bukhari, 6/27, 5185. Muslim, 4/178, 1468)

고아인권보장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고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꾸란은 무슬림들에게 고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대우해야 함을 강조한다.

“고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탐내는 자는 그들의 복부에 불길을 삼키는 것과 같나니 그들은 타오르는 화염 속에 밟히 되리라.”

꾸란 4장 10절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말씀하기를,

“나는 현세에서 고아를 보살핀 자와 천국에서 이만큼 가까이 있을 것이 나라.”

그런 후 집게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을 들어 올려 보여주었다.⁵

(Sahih Al-Bukhari, 7/53, 5304)

기탁물을 그것의 소유자들에게 환원할 것: 예언자 무함마드_{SAW}에게 누 군가의 장례예배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예언자 무함마드_{SAW}는 죽은 사람에게 빛이 남아 있거나 소유자들에게 환원해야 할 기탁물이 있는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언자 무함마드_{SAW}는 기탁물을 그 소유자들에게 환원한 후 장례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기탁물을 그것의 소유자들에게 환원하도록 명령하셨으며 너희가 판별할 때는 공정하게 판정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친 교훈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니라.”

꾸란 4장 58절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

이슬람법에 의하면 누군가가 죽으면 그(그녀)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속의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재산의 삼분의 일 이상을 자선을 목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것은 꾸란의 가르침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모든 상속인들 간에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병을 회복한 그의 교우를 찾아갔다. 그가 예언자에게 자신은 부자이고 딸 이외에 재산을 남겨줄 사람이 없으며 재산의 삼분의 이를 자선해도 되겠는지 묻자 예언자_{SAW}가 “안 되느니라.”고 답하였다. 그 교우가 다시 재산의 반을 자선해도 되겠는지 묻자 예언자_{SAW}는 또 다시 “안 되느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삼분에 일은 어떠냐고 묻자 예언자_{SAW}는 “삼분에 일을 자선으로 주어라. 하지만 이 정도의 양도 너무 많다.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주어 그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가난하게 놔두어 남에게 구걸하게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였다.

이슬람에 이자는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자로 얻은 모든 이익은 포기해야 할 것이니라. 너희의 재산은 너희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니라. 남에게 고통을 가하지도 말고 불공정한 취급을 당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리대금을 취하는 자들은 악마가 스치므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며 말하길 상거래는 고리대금과 같도다 라고 그들은 말하나 하나님께서 상거래는 허락하였으되 고리대금은 금지하셨노라.”

꾸란 2장 275절



서예가 파리드 알-알리가 예술적으로 창조한
아랍어 서예 '무함마드'.

‘명예살인’과 ‘보복’의 금지: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유혈복수를 금하였다. 그는 고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날로 이슬람 이전 무지의 시대에 저지른 모든 살인에 대한 보복을 금하느니라. 그리고 우선 (나의 삼촌 중 하리스의 아들) 라비아흐(Rabi’ah)의 살인을 용서하느니라.”
(Tirmithi, 5/167, 3087. Ibn-Majeh, 4/243, 3055)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에 의한 살인: 이슬람에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것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다.

그러나 실수로 또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라면 이에 대한 형벌은 피살자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 시대 때 그 보상금은 100마리의 낙타였다. 만약 누군가 이 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무지의 시대(이슬람 이전 시대)때부터 내려온 악습이라고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언급하였다.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 싸우되 선제공격하지 말라: 이슬람은 적이 먼저 공격을 개시하지 않는 한 먼저 싸움을 시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꾸란 2장 190절 참조).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의 교우들에게 적과 포로에 대하여 도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무슬림군은 적군에게 어떠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전사했을 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의 교우들에게 선제공격이나, 집, 농작물, 보급품 등의 파손이나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약한 자를 공격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금하였다. 그것은 역



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극도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전쟁의 목적은 살생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양쪽 모두에게 최소한의 해가 끼치도록 노력하였다. 전쟁의 규칙에 대하여 꾸란에 언급되기를,

“너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적들에게 맞서 싸우되 그러나 먼저 공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선제공격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꾸란 2장 190절

자살행위는 대죄

‘생명’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인간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나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것이다. 따라서 자살은 금지이며 어떠한 종류의 자학행위도 허락되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자살을 저지른 자에게 큰 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누가 자신을 금속조각으로 자살한다면 지옥에서도 그는 같은 금속조각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자살하도록 할 것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니라. 누가 독약을 먹고 자살한다면 지옥에서도 그는 지속적으로 독약을 먹을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민간인, 어린이,
여성, 노인

파괴하지 말라

자연
(나무를 함부로 베거나 태우지 말라)

또한 누가 산과 같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면 지옥에서도 그는 높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뛰어내리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니라.”⁶

생명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그것에 해를 가하는 것은 금지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귀하고 소중한 재산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떠한 경우든 성스럽고 고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꾸란에서 인류의 첫 살인은 아담의 아들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살해한 것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런 일(카인과 아벨의 사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법을 내리셨나니 타인과 그리고 지상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해했다면 그것은 모든 백성을 살해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구제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더라...”

꾸란 5장 32절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폭력을 비난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결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가 메디나로 이주하여 이슬람교를 세웠을 때도 메카에 거주하는 소수 무슬림 공동체를 한 번도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암살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는 그들에게 메카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도록 요청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의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언제 어디서나 친절함을 보여준다면 아름다움과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라. 그러나 난폭한 행위는 모든 것을 망치느니라.” Narrated by Muslim





터키 출신 핫산 첼레비(Hasan Celebi) 서예가가 쓴 꾸란 구절.
"너희가 판결할 때는 공정하게 판결하라." 꾸란 4장 58절



이집트 출신 이삼 압둘팻타(Isaam Abd Fattah) 서예가가 쓴 꾸란 구절.
"집진 자가 (최후 심판의 날)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니" 꾸란 17장 15절

말미의 주석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는 다양한 인종들이 겪고 있었던 차별과 정책을 향해 끊임없이 투쟁한 훌륭한 예다. 그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슬람은 인간의 혈통, 피부색, 재산이나 권력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국가를 편애하는 것을 금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으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신앙과 경건함의 기초 위에서만 서로 구별될 수 있다. 꾸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의 구절로 인간의 평등함에 대해 말씀하신다.

"너희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은 그분(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니라." 꾸란 49장 13절

2. Riyadh Al-Salihin (1603/4), (1605/6)

3.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자의 원수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는 또한 임금을 줄 때는 노동한 자의 땀이 마르기 전에 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임금지불을 지체하는 것은 이슬람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4. 이슬람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slamreligion.com/category/110/>
5. Sahih Al-Bukhari (34/8)
6. Sahih Al-Bukhari (5778) 그리고 Sahih Muslim (109)



예술적으로 재탄생한 '무함마드' 아랍어. 서예가 파리드 알-알리의 작품.

절하는 형태의 이 나무는 호주 시드니의 남쪽에 위치한 나우라 (Nowra)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이 모습은 마치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과 흡사한데 나무 아래쪽의 끝은 절하는 사람의 머리를 연상시킨다.



예언자 무함마드 SAW의 ‘환경’에 대한 가르침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SAW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환경 보호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우주를 통제하고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피조물에 어떠한 해악도 끼쳐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개발과 낭비 등으로 환경을 해치는 것은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 SAW가 말씀하기를, “무슬림이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려 그것으로부터 얻은 열매를 다른 사람이나 짐승, 그리고 새들이 먹는다면 그것은 모두 그가 행한 자신이 되느니라.”

예언자 무함마드 (Bukhaari, 2320)와 (이슬람교도, 1188)

완벽한 균형의 천연자원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의 교우들에게 모든 천연자원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완벽한 균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가르쳤다.

“하나님께서서는 적절한 조화를 두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노라.”

꾸란 54장 49절

“...모든 것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노라.”

꾸란 13장 8절

“...모든 것을 완벽히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

꾸란 27장 88절

천연자원을 사용할 평등권

천연자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하지만 이것을 낭비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법적으로 민영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천연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가치의 추구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 것.

환경을 파괴시키지 말 것.

천연자원을 낭비하지 말 것.

천연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재활용을 고려할 것.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꾸란 23장 14절

기본규칙: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천연자원 보호와 환경 보존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규칙을 마련하고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해를 끼치는 것도 (해를) 해로 화답하는 것도 없느니라.”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신앙에는 칠십 개가 넘는 가치들이 있느니라. 이것들 중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니라.”



초록빛 나뭇잎처럼 보이도록 조형화된 '무함마드'라는 아랍어 단어.

물을 낭비하지 말라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물을 낭비하지 말고 항상 필요한 만큼의 물만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며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너희들이 강에서 우두를 할지라도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 (우두 wudu: 부분세정)



그는 또한 고여 있는 물을 오염시키거나 그 물에 소변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였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매우 상세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작은 행위가 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므로 예언자 무함마드^{SAW}를 통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세심히 가르쳐주셨다.



하나님께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 물을 모든 생명체의 근본으로 두셨으나...”

꾸란 21장 30절

“실로 낭비는 사탄의 한 형제로, 사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니라.”

꾸란 17장 27절

“...과식하지 말며 과음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낭비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꾸란 7장 31절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기: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우주 전체가 붕괴되고 지구에서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창조주께서 마련해주신 환경을 위해 가치 있는 행위를 하도록 격려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말씀하기를,

“최후의 날이라 하여도 누군가의 손에
묘목이 있다면 그것을 심도록 하라.”

(Musnad Ahmad, 5/2727, 13100)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호해야 함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해악을 퍼뜨리고 농작물과 가축을 파괴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으로 내세의 안식처를 구하라. 그리고
현세에서 너의 몫을 망각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을 베푸셨던
것처럼 선을 베풀되 땅 위에 해악을 퍼뜨리지 말라. 실로 하나님은 해악을
퍼뜨리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 하시니라.”

꾸란 28장 77절

동물 복지

동물과 모든 피조물은 지구상의 거대한 생명공동체의 일부이다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가두어놓거나 학대하는 것을 반대하며 특히 동물을 후려치거나 때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

누군가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동물에게 친절을 베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답하기를, “살아 있는 모든 것에 친절을 베풀면 보상이 있느니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동물도 두 날개로 나는 새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일부라. 내가 성서에 빠뜨린 것이 없으니 그들 모두는 종말에 그들 주님께로 불러갈 것이니라.”

꾸란 6장 38절

‘할랄’이란 허용된 음식만을 뜻하지 않는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동물을 죽일 권리가 없다고 그의 교우들에게 말씀하였다. 인간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물을 정해진 방법대로 도살할 수 있다. 돼지를 제외하고 소, 양, 닭과 새 등 초식동물만을 도살하여 섭취할 수 있다.

할랄(허락된) 동물을 도살 시 고통은 최소한으로

동물을 도살할 때 절대로 무딘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칼은 미리 아주 날카롭게 갈아놓고 도살 시 다른 동물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돌이나 다른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도 안 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다른 동물 앞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다른 동물이 도살되는 모습을 본)동물을 여러 번 죽이고 싶은가?”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젊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낙타에 대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낙타가 나에게 당신이 그를 굶주리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하였다고 비난하였느니라.”

(Abu-Dawoud, 2/328, 2549)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등지에 있는 갓 부화한 새들을 훔쳐 어미 새를 걱정케 빠지게 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누가 이 갓 부화한 불쌍한 새들을 훔쳐 어미 새를 괴롭히는가?
 어서 갓 부화한 새들을 어미 새에게 돌려주어라.”

(Abu-Dawoud, 3/8, 2675, 4/539, 5268)



동물에게 베푸는 친절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베푸는 친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해주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동물에게 친절을 베푸 따뜻한 마음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어느 청년이 한 마리의 개가 우물가에서 혀를 늘어뜨리고서는 갈증을 식히기 위해 진흙을 핥고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청년은 가죽 양말을 벗어 우물 안으로 들어가 가죽 양말에 물을 담아 개에게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운 행동 때문에 그의 죄들을 용서하셨느니라.”

(Sahih Al-Bukhari, 3/132, 2466. Muslim, 7/44, 2244)

동물을 억압하는 일이 얼마나 큰 악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한 마리의 고양이를 죽을 때까지 가두어 놓았던 한 여성이 벌을 받았느니라. 그녀는 이 악한 행동으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되었느니라. 고양이를 가두어 놓는 고양이에게 음식도 물도 주지 않고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벌레도 먹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기 때문이니라.” (Sahih Al-Bukhari, 3071)





“꾸란은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전에 계시된 것(토라와 복음서)을 충족시키며
그 성서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계시되었으니
이것은 만유의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노라.”
꾸란 10장 37절



하나님께서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내린 기적



많은 학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임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되어 이슬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의 임무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고 언급한다. 각각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각기 다른 기적을 일으켰는데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행한 기적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인 ‘꾸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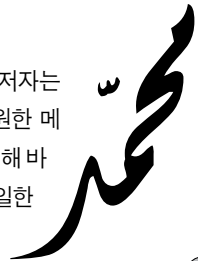
꾸란은 아랍어로 계시되었는데,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자기 민족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아라비아반도뿐 아니라 외부의 다른 종교,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들에게도 전달했다.

“그들은 꾸란을 속고하지 않는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모순을 발견했으리라.”

꾸란 4장 82절

꾸란이 ‘영원한 기적’인 이유는?

꾸란은 문자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꾸란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메시지이다. 꾸란은 어떤 예언자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바뀌어지지 않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된 유일한 성서다.



꾸란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 의해 그들 시대 사람들만이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기적들과는 달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눈으로 보고 읽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영원한 기적이다.



“인간과 진¹이 서로 같이하여 이 꾸란과 같은 것을 만들려 해도
저들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리라
비록 저들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해도 그러하니라.”

꾸란 17장 88절

꾸란은 보존되어 그 원본이 현재까지 존재한다

현재 꾸란은 14세기 전에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계시된 꾸란과 똑같다.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꾸란의 글자 하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낱말과 음절까지 머리로 암기하고 있다.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칼리파(Khalifah: 계승자)인 아부 바크르(Abu Bakr)에 의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예언자 무함마드^{SAW} 이후 13년이 지나자마자 세 번째 칼리파인 우스만(Uzman)은 이 꾸란 원본을 7권의 필사본으로 만들어 각 이슬람 주와 도시별로 보냈다.



꾸란 구절의 일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구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답하여 주리라.” 꾸란 40장 60절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계시를 전하면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꾸란을 암송하고 이를 교우들이 받아 적었다(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문맹이었음). 그들은 차례로 꾸란을 암송하고 기록하여 다시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검증받았다.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매년 꾸란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받았고(꾸란은 총 23년 동안 계시되었음) 그의 생애 마지막 해에는 꾸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두 번 확인받았다. 꾸란은 오늘날까지 단 한 글자도 수정, 보완, 삭제된 적이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유일한 하나님의 성서이다.



꾸란의 특수성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말씀과 가르침이 ‘꾸란’과 섞이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꾸란에는 어떠한 인간의 말도 들어가지 않았다. 반면 성경은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1,400이나 1,800여년에 걸쳐서 기록한 총 66 권(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²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말씀과 가르침을 편찬한 언행록을 ‘하디스(Hadith)’라고 하는데 하디스에는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가르침, 관행 그리고 꾸란의 해석 등이 담겨 있다.



꾸란의 구절을 정확하게 읽기 위한 “타즈위드”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과학적 특성을 지닌다. 이것은,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꾸란을 암송한 방법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교우들이 보여주었던 최고 수준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교우들은 “타즈위드”를 정립하여 사람들이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암송한 방법 그대로 꾸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타즈위드
독특한 과학

풍부한 언어: 꾸란은 아랍어로 계시되었다. 무슬림 학자들은 아랍어가 수많은 어휘와 강력한 문법으로 인해 다른 언어들보다 우수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아랍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다른 언어보다 더욱 정확하게 묘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8개의 글자들로 이루어진 아랍어 중 강한 디(D)로 불리는 “되드”와 강한 티(T)로 불리는 “뜨”는 다른 언어에서 찾아볼 수 없다.

단 하나의 아랍어 단어에서 100가지의 단어들 이 파생된 경우도 있다. 아랍어 단어의 총수는 약 600만 개 정도이다. 이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언어들의 단어들 수보다도 많음을 의미한다.



‘하디스’ 전집과 다른 성서 간의 비교

다양한 종교의 많은 성서는 인간의 말과 문장으로 저술되었다. 하디스 전집은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수집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직접 했던 말씀과 가르침이 들어 있다.

꾸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존경이나 영광의 뜻으로 대명사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랍어 문법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쓰인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이것이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밝혔다.

완전히 보존된 꾸란 암송 방법: 꾸란을 암송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꾸란을 암송할 때는 느린 멜로디 형태로 읊조리는데, 이것은 “타즈위드(Tajweed)”학으로서 이슬람 신학교의 정규교과과정에 속해 있다.

즉, 꾸란의 문맥상 각 글자와 음절이 갖고 있는 완벽하고 부드럽고 균형 잡힌 발음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데 하나의 절에는 한 개 이상의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점을 넣어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쉬 후 낭송해야 하는지를 꾸란에 표시하고 있다.

꾸란을 암송하는 다양한 방법은 그것을 전언한 자와 예언자 무함마드^{SAW}로부터 들었던 암송자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꾸란에 언급된 주요 과학적 사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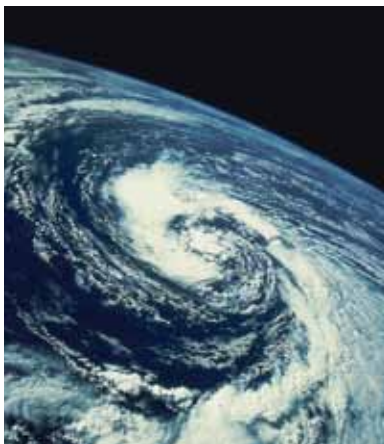
빅뱅과 우주의 창조

예언자 무함마드^{SAW}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우주의 창조와 행성의 운동 심지어 지구가 평평한지 둥그런지조차 알 수 없었다.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모든 것을 그분의 창조 섭리와 자애(慈愛)의 징표로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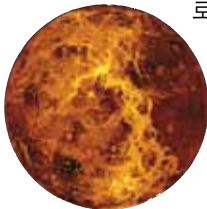
14세기 전에 이미 꾸란은 우주의 창조, 태양과 달의 운동, 지구의 자전에 의한 낮과 밤의 발생 등 기적적인 사실을 언급하였다.

'빅뱅'이론에 따르면, 온 우주는 최초에 하나의 큰 덩어리(최초의 성운)였다가 '빅뱅'이 일어나 은하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항성(역자 주: 태양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내며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별)과 행성 등으로 분리되었다.



팽창하는 우주

1925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Edwin Hubble)은 모든 은하계는 서로 후퇴하는 성질, 즉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주목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모든 행성이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과 태양을 하나의 축으로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공전한다는 것이 과학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현대의 과학적 발견들과 14세기 전에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계시된 다음의 꾸란 구절의 놀라운 일치는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400년 전 아라비아 사막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성스러운 책이 어떻게 이렇듯 심오한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



“불신하는 자들은 하늘들과 땅이 과거에 한 덩어리였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 후 나는 그 둘을 분리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물로써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는가?”

꾸란 21장 30절

“그런 후 그분께서는 연기 상태인 하늘 위로 오르신 후 그(하늘)와
대지에게 ‘좋은 싫든 너희 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둘이 ‘저희들은 복종하며 왔습니다’라고 말하더라.”

꾸란 41장 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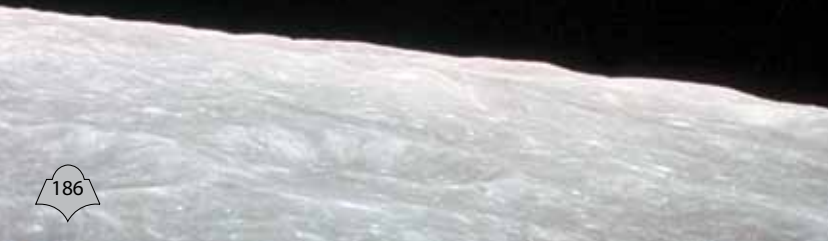


“그리고 그분(하나님)께서는 밤과 낮과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분이아.
모두는 궤도를 따라 순항하노라.”

꾸란 21장 33절

“그리고 하늘은, 내가 그것을 힘으로써 세웠으며
진실로 나는 팽창시키는 자이노라.”

꾸란 51장 47절



발생학과 인간의 창조: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계시된 다음의 꾸란 구절은 아기가 태내에서 거치는 세 개의 단계에 대해 언급하는데, 인간의 탄생에 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꾸란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서술되지 않았다.

“...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내에서 너희를 만드사
차례로 단계를 두시어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 곳이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주님 하나님이니시니라...”

꾸란 39장 6절



현대과학은 자궁 내 태아를 보호하는 세 개의 튼튼한 어두운 막에 대해 밝혀냈는데, 즉 이 세 개의 어두운 막은

- (1) 어머니의 복부벽
- (2) 자궁벽
- (3) (태아를 싸는) 양막이다.



태아의 발달단계에서 초기에 발달하는 감각기관은 청각이다. 꾸란 9장 32절, 2장 76절 그리고 78장 23절 등 이 모든 구절에서는 청각을 시각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다. 감각의 발달 순서는 꾸란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발생학에서 발견된 사실과 일치하다.

“... 가장 훌륭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축복이 가득하도다.”

꾸란 23장 14절

309

놀라운 '연도 계산'

'꾸란 18장 25절'은 7명의 사람이 동굴 속에서 300년 하고도 9년을 더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언급한다. 예언자 무함마드^{SAW} 시대 때에는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연도 계산(300년하고도 9년) 대신에 왜 총 309년이라고 하지 않았는지를 몰랐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반도에서 어느 누구도 태음년과 태양년사이의 차이를 몰랐다. 태음년의 일수는 태양년보다 11일이 짧다. 놀라운 사실은 300년에 대한 태음년과 태양년사이의 차이는 **9년**이다.

꾸란은 일반적으로 총 604쪽으로 인쇄된다. 1~114장으로 구성된 꾸란에는 총 6348개의 구절이 있으며 약 80,000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꾸란의 가장 긴 장은 제2장인 바까라(Baqarah) 장으로서 총 28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짧은 장은 제108장인 카우사르(Kauthar) 장으로 총 3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다.

정액

응혈

세포 및
살의 일부

뼈

살

1,400년 전, 꾸란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리고 실로 나는 인간을

진흙에서 빠져 나온 것으로부터 창조하였노라.
그런 후 나는 그를 확고한 정착지에 방울로 두었도다.
그런 후 나는 그 방울을 들러붙은 것으로 만든 후
그 들러붙은 것을 씹혀진 것으로 만든 후
그 씹혀진 것을 빠로 만든 후 그 뼈에 살을 입혔노라.
그런 후 나는 그를 또 다른 창조물로 만들었으니...”

꾸란 23장 12-14절

놀랍게도 태아의 발달을 단계적으로 묘사한 꾸란의 내용과 오늘날 현대과학이 밝힌 사실은 정확히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살이 형성되기 전에 뼈가 형성된다는 과학적 사실도 위 꾸란 구절에 언급된 내용과 똑 같다.³

말미의 주석

1. 진(Jinn): 진은 불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다. 수명과 성(性을) 가지며 인간처럼 선행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2. 구약성경은 기원전 1,500~400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신약성경은 기원후 1세기 후반에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마태복음은 기원후 50년에서 7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원후 85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꾸란에 언급된 발생학과 과학적 사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eajaz.org www.islamhouse.com

아래의 동굴은 동굴의 사람들(7명)이 거주했던 장소로 간주된다. 이 동굴은 요르단 동쪽에 위치한 아부 알란다(Abu Alanda)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요르단 당국이 동굴 근처에 이슬람성원을 건립했다. 사진의 문은 동굴 입구에 설치된 것이다.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견

꾸란 30장 2-5절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이 언급되어 있다.



“로마는 망하였으되 가까운 지역에서 비록 그들이 패배하였지만 승리를 거두리라.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것과 이후의 것을 통치하시리니 그때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그분이 원하시는 자를 승리케 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니라.” 꾸란 30장 2-5절

예언자 무함마드^{SAW} 시대에 아랍인은 두 초강대국(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의 갈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위의 꾸란 구절은 두 제국간의 전쟁과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로마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몇 년 후 승리했다. 페르시아 제국은 614-619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제국에 승리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만 몇 년 후에 로마군이 니네베(Nineveh, 이라크에 있는 한 도시)에서 페르시아군에 승리했다.

지리학에 관한 꾸란의 언급

최근 지질연구에 따르면 요르단 끝 부분에 있는 사해는 전 세계에서 염분 농도가 가장 높은 해수다. 사해는 평균 해수면보다 422m 아래 위치하여 지표상 가장 고도가 낮은 곳이다.* 위 꾸란 구절은 로마군이 아라비아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패배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인 사해를 암시한다. 이 전쟁은 사해 근처에서 일어났다.

*주석: 아랍어 '아드나(adna)'란 '가장 가까운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뜻한다.



예언자 무함마드 SAW가 말씀하기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위하는 것은 마치 건물의 벽돌이 서로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과 같으니라.”

예언자 무함마드 SAW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양손가락을 짝지 끼웠다.

부카리, 무슬림, 티르미지가 전함



“너희의 동료(무함마드)는 방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아니했으며

자신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알 부카 하리 (6417)와 이슬람교도 (1671)

예언자 무함마드 SAW의 말씀

계시와 지혜의 바탕에서 나온

예언자 무함마드 SAW의 언행은

인간 삶의 많은 측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순나(Sunnah)’는 꾸란에 이어 무슬림을 위한

두 번째의 권위적 지침으로

‘예언자 무함마드 SAW의 삶의 방식과 언행’을 의미한다.

예언자 무함마드 SAW가 세 개의 선을 바닥에 그은 후

선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것은 인간이고 (그 옆에 있는) 저것은 인간의 죽음을 나타내는 선이니라.

(더 멀리 있는 것은 인간의) 요구이니라. 인간이 자신의 또 다른 바람을 이루려고 애쓰는 동안 결국 그에게 가장 가까운 선(죽음)이 나타났느니라.”

부카리와 티르미지가 전함



“다음 다섯가지 사항이 오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도록 하라.

늙기 전에 젊음을,

병들기 전에 건강을,

가난이 오기 전에 부유함을,

바쁘기 전에 여가 시간을,

죽음이 오기 전에 삶을”

Al-Mustadriq No. 7846 (4/341)의 알-하킴 (Al-Hakim)



“신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무슬림은 보다 훌륭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니라.”

티르미지가 전함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과 (선을 행하기 위한) 여가 시간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6412



“부러움의 대상은 단지 두 사람의 경우밖에 없느니라.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축복을 받고 그 재물을 명분에 맞게 지출하기 위한 권한을 받은 자이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가르치는 자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73/15



“(종교적인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편하고 쉽도록 하여 줄지니, 그것으로서 그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며 기쁜 소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슬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라.”

부카리가 전함 69/11



“상거래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계속되는 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니라. 서로가 사실만을 말하고 모든 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들의 거래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감추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거래에 있을 축복은 사라질 것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2082/22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부카리가 전함 13/7



“자선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니라.’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언자 무함마드_{SAW}가 답하기를,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두 손으로 일하여 얻은 것으로 자선을 베풀면 되느니라.’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하여 예언자_{SAW}가 말씀하기를, ‘가난한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느니라.’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하여 예언자_{SAW}가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과 좋은 일을 하도록 격려하면 되느니라.’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예언자_{SAW}가 말씀하기를,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하라. 그것도 자선이니라.’”

부카리가 전함 1445/30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를 제외하고 그의 행위들은 끝나느니라. 그 세 가지는 그가 생전에 행한 자선과 유익한 지식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훌륭한 자손이니라.”

무슬림, 티르미디, 나사이가 전함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악행을 저지른 후에는
선행을 하여 그 선행이 악행을 씻어낼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히 대하라.”

티르미다가 전함 1987 & 아흐마드가 전함 5/153



“선행은 훌륭한 행위이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은 것은 죄이니라.”

무슬림이 전함 15/2553



“강한 사람은 힘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노여움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Bukhaari, 5785)와 (이슬람교도, 4853)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옳은 말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침묵하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그의 이웃에게 관대하라.

하나님과 내세를 믿는 자는 그의 손님에게 관대하라.”

부카리가 전함 6018 & 무슬림이 전함 74-47

음식과 약에 관한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가르침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의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의 의료”라는 책에 음식, 건강한 식습관, 허브를 이용한 치료, 대체 의학 등에 관한 그의 말씀들이 수집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위가 병의 거처라고 자주 강조하며 허기를 만족시키기 위해 배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소식을 하거나 몇 입의 양만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충고하였다. 이는 우리 몸의 합병증 발생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위는
병의 거처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그의 교우들에게 항상 적당한량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비만을 피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격려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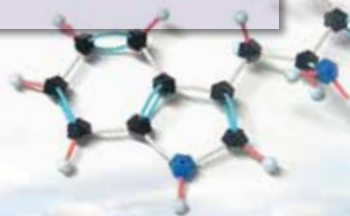
“오, 아담의 자손들이여! (예배를 위해) 성원에 있을 때면 항상 그대들의 옷을 입으라. 사치하지 말고 과식하지 말며 과음하지 말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낭비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꾸란 7장 31절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생물학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유발되는 것이며, 스트레스 등의 외부적인 사건, 개인의 성격 등 복합적인 원인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과학자들은 이 중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고 여긴다.

여러 물질들 중 특히, 세로토닌(Serotonin),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도파민(Dopamine)이 우울증에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리에는 세로토닌의 구성물질인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 1,400년 전에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보리에 관한 언급은 매우 놀랄 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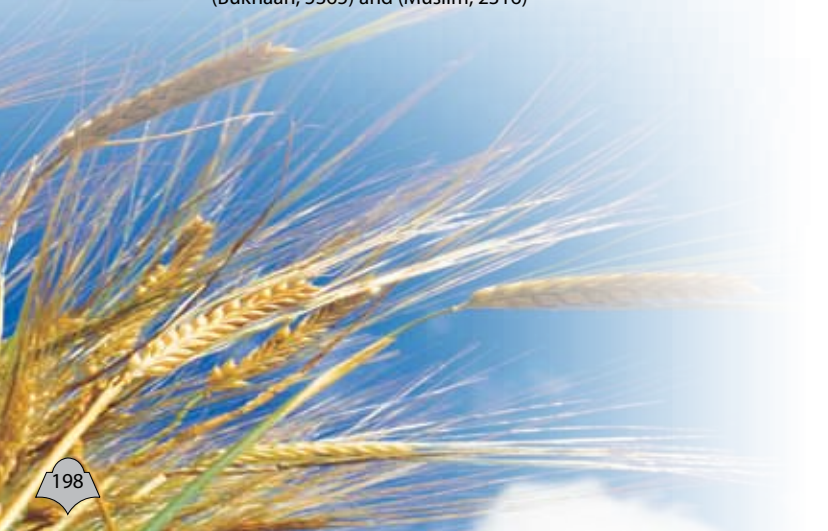
‘보리’는 슬픔에 대한 처방전

현대에 들어와 보리가 건강을 지켜준다는 많은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리는 지방 축적을 억제해 비만을 방지하고 효소, 비타민, 미네랄, 식물화학물질,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트립토판(Tryptophan)을 포함하고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보리 수프(talbinah: 탈비나)’가 위장병에 매우 효과가 좋으며 심지어 슬픔과 우울증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의 아내 아이샤는 그녀의 친척들에게 고인에 대한 슬픔을 경감하기 위해 보리 수프를 권장하였다. (부카리가 전함) (Bukhaari, 5365) and (Muslim, 2316)

우울증 치료제
보리



밀이나?
보리나?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보리가루로 만든 빵을 먹기 좋아하였다.



보리가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다

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즉, 보리가 콜레스테롤과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아부 카리마 미끄담 본 마디카립이 전하기를,
“인간이 가득 채우는 것 중 위를 가득 채우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느니라. 몇 입의 음식만으로도 인간은 등을 받듯이 펴 수 있기 때문이니라. 만약 위를 채우고 싶다면 위의 삼분의 일은 음식으로, 삼분의 일은 음료로, 나머지 삼분의 일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하느니라.”

티르미지가 전함

1/3 음식
+
1/3 음료
+
1/3 공복



잠잠(Zamzam) 광천수: 잠잠은 메카 도시에 위치한 하람성원에 있는 카아바의 동쪽에 깊이 20m에서 솟아나온 광천수이다. 수천 년 전에 예언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갈증으로 울기 시작했기에 그의 어머니 하갈은 여기저기 뛰어 다니며 물을 찾아다녔고 그 때 이스마엘이 뒤꿈치로 땅을 차서 갑자기 하님의 기적으로 아기 이스마엘의 발밑에서 잠잠 물이 솟아 나왔다. 하같은 급히 뛰어와 신선한 물을 목말라하는 아들에게 먹였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으며 이 물이 바로 현재 메카의 성지순례자들이 마시는 '잠잠'물이다.

잠잠 물은 약간의 알칼리성(pH=7.5)을 띄며 독특한 맛이 난다. 종류수와 같은 탈염수를 마시는 것은 위와 장에서 pH 산성을 발생시켜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잠잠 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물로서 맛이 좋으며 많은 질병을 치유한다고 말씀하였다.

바짜르와 타바라니가 전함

미국식품의약청은 물 1l에 0.25mg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으면 '광천수'라고 규정하였다.

잠잠 물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1l에 1mg의 미네랄이 들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규범을 준수한다.



잠잠 물은 인간의 몸에 필요한 칼슘(뼈와 치아 성분외에도 심장, 신경, 혈관, 근육 등의 신체조직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성분), 소화에도움이 되는 중탄산염과 총치를 예방하는 불소(플루오르) 등 풍부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

잠잠 물은 칼슘이 풍부한 물 중 하나로 195-200mg/L 정도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 매일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20%에 해당한다.)

잠잠 물이 유명한 광천수들 중 에비앙(Evian, 78-80mg/L 칼슘 함유)과 페리에(Perrier, 147-150mg/L 칼슘 함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한다.



광천수는 광범위한 치료적 기능을 갖는데 근육, 류머티즘 그리고 관절염과 관련된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에 도움을 준다.



물방울 모양의 '라수-물라(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아랍어 단어. 서예가 파리드 알-알리의 작품.

송로버섯 액은 눈의 치료약이다

예언자 무함마드 SAW가 말씀하기를, “송로는 ‘만나(mann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푸신 음식)’의 일종으로 그것의 물은 눈의 치료약이니라.” (Bukhaari, 5708) and (Muslim, 5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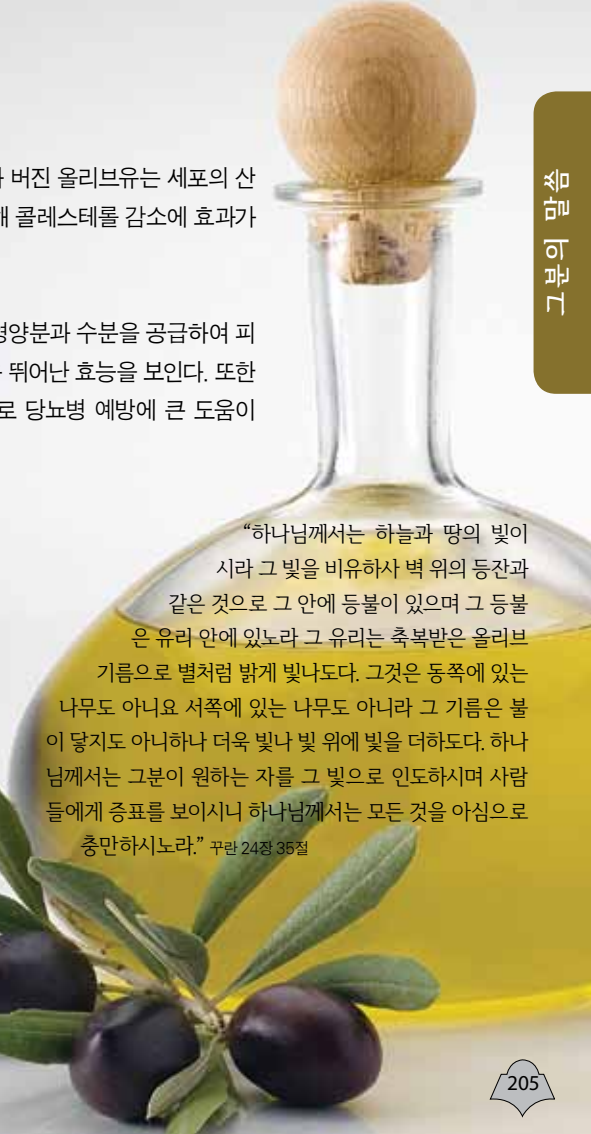
송로버섯은 주름버섯과에 속하는 식용버섯이다.

이것은 2~50cm 땅 속에서 자라며 흰색, 회색과 갈색이 있으며 특이한 냄새가 난다.

연구분석에 따르면 송로의 77%는 물이며 나머지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다른 성분들이다.

현대과학은 송로의 액체부분이 시력을 저하시키는 트라코마(Trachoma) 등 많은 눈 질환을 치유하는데 효과적임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의 빛이 시라 그 빛을 비유하사 벽 위의 등잔과 같은 것으로 그 안에 등불이 있으며 그 등불은 유리 안에 있노라 그 유리는 축복받은 올리브 기름으로 별처럼 밝게 빛나도다. 그것은 동쪽에 있는 나무도 아니요 서쪽에 있는 나무도 아니라 그 기름은 불이 달지도 아니하나 더욱 빛나 빛 위에 빛을 더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자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며 사람들에게 증표를 보이시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으로 충만하시노라.” 1코린 24장 35절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세포의 산화 방지와 유해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다.

피부 깊숙이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보습에 매우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또한 혈당조절효과로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올리브유의 권장

예언자 무함마드 SAW가 말씀하기를,
“올리브기름을 먹고 너희들의 몸을 올리브기름으로 문지르라. 그것은 성스러운 나무에서 나온 것이니라.”
(Tirmithi, 1851)

의학계에 의하면 올리브유는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는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질환을 예방하여준다.

꾸준한 올리브유의 섭취는 소화촉진작용을 강화시켜 원활한 소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위궤양이나 위염, 위경련, 복통 등의 치유에 도움을 준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소재
예언자의 성원(알-마스진 알-나바위)

비고: 이슬람성원과 일체가 된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집과 묘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예언자 무함마드SAW

역사는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숭고함과 사람들을 향한 인도적 태도를 기록하였다. 그의 부름과 가르침은 우호와 우의를 다지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그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성품을 전혀 갖지 않았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마이클 H. 하트 (Michael H. Hart)는 지금까지 실재했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뽑아 저술한 '랭킹 100: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The 100: A Ranking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무함마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를 창시한* 자이며 정치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자였다. 그의 사후 13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영향력은 깊고도 강하다."라고 언급한다.

* 이슬람은 인간에 의해 창시된 종교가 아니며 따라서 무함마드SAW는 창시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언자일 뿐이다.



“그는 역사상 종교적 그리고
세속적 관점 모두에서 지극히
성공적이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마이클 H. 하트

“무함마드는 무역과 미술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저있던 아라비아 남부의 메카에서
570년에 태어났다.”



예술적으로 만들어낸 '무함마드'라는 아랍어 단어

“무함마드가 이슬람에 미치는 영향은 예수와 바울이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것 같다. 오직 종교적 측면에서만 볼 때 무함마드는 예수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 예언자 무함마드^{SAW}

프랑스 학자 라마르틴(Alphonse de Lamartine)은 그의 저서 “터키의 역사(History de la Turquie)”에서 예언자 무함마드^{SAW}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목적의 위대함과 물리적 수단에는 낮은 의존도, 그리고 놀라운 성과가 인간의 천재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진정한 기준이라면 인류의 근대 역사상 어느 누가 무함마드에 필적할 수 있겠는가?”

“유사 이래 어떠한 인간도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그토록 숭고한 목적을 지향한 적이 없다. 이는 그 목적 자체가 인간의 능력을 이미 초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이란 인간과 그의 조물주 사이를 이간하는 미신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인간에게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며, 물질적이고 왜곡된 우상들이 범람하는 혼돈 속에서 합리적이고 성스러운 신성(神性)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인간도 그토록 거대하고 지속적인 혁명을 달성한 적이 없다.”



라마르틴은 또한 “무함마드는 물질적인 힘에 불과한 무기와 왕조를 움직이지 않았고 사상, 신념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움직였다. 글자 하나 하나가 법이 되어버린 단 한 권의 책을 토대로, 그는 모든 언어와 인종이 하나가 된 정신적인 국가를 탄생시켰다.”고 덧붙였다.



무함마드^{SAW}: 하나님의 예언자

수라까에 대한 이야기; 20년 후 이루어진 예언자의 약속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그의 교우 아부 바크르와 함께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메카의 우두머리들은 예언자를 사살하거나 생포하는 사람에게 낙타 100마리를 포상금으로 주겠다고 하였다.

이 포상을 원했던 '수라까 이븐 말릭'이란 사람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와 일행을 발견하였을 때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다. 그는 말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자였다. 다시 말에 올라탔지만 조금 지나 또 떨어졌다. 말에서 떨어지는 일이 세 번 되풀이되자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진실로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깨닫고 그 분을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그 때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수라까에게 놀라운 소식을 말씀해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미래에 페르시아 왕의 팔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수라까는 메카로 돌아왔지만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630년에 메카를 평화적으로 정복했을 때까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632년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교우들은 예언자가 수라까에게 약속한 사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다.



시간이 지나 '우마르 븐 알카타브'가 이슬람의 두 번째 칼리파가 되었다. 642년에 이슬람군대는 페르시아군대와 싸워 승리하였고 전리품들 중에는 페르시아 왕의 팔찌도 있었다. 우마르가 수라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를 불렀다.(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수라까에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언급한 지 20년이 지났고 이제 수라까도 노인이었다.)



예배 후 우마르가 수라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당신에게 약속한 페르시아 왕의 팔찌가 여기 있소. 팔찌를 들어서 모든 무슬림들에게 보여주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말이오.”

수라까는 이 기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약속이 그가 죽음을 맞이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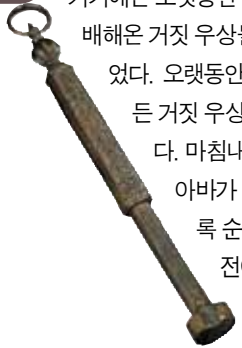


카아바 문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약속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630년에 메카로 진격하였다. 이는 정복 역사상 가장 놀랍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예언자^{SAW}는 그 누구의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로이 메카를 정복했다. 예언자^{SAW}가 카아바에 입성하였고 거기에는 오랫동안 아랍인들이 머리 숙여 숭배해온 거짓 우상들과 돌들 360여 개가 있었다. 오랫동안 신으로 여겨졌던 그 모



든 거짓 우상들이 예언자^{SAW}의 명령으로 부수어져 가루가 되었다. 마침내 예언자 아브라함과 그의 장남 이스마엘이 세운 카아바가 진실로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숭배하도록 순수해지고 재정립되어졌다. 예언자^{SAW}가 (이슬람 이전에 노예였던 흑인 무슬림 '빌랄'(Bilal)에게 카아바 위로 올라가서 아단(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을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لَّهُمَّ صَلِّ عَلَى مُحَمَّدٍ وَعَلَى آلِ مُحَمَّدٍ
 وَعَلَى مَنْ تَرْضَى خَلْقَهُمْ
 وَعَلَى مَنْ تَرْضَى خَلْقَهُمْ



부르라고 하였다. 그러자 빌랄이 아단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하나이다.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나이다.

이슬람 이전에는 조약에 의해 바니 샤이바(Bani Shayba) 일가(一家)만이 카아바를 관리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원래 카아바 문의 열쇠를 관리하던 우스만 본 탈하(바니 샤이바 일가 출신)에게 돌려주면서 우스만과 그의 후손들이 이 열쇠를 영원토록 관리하라고 명하였다. 그 결과 카아바 문의 열쇠를 관리하는 전통은 바니 샤이바 일가에게만 맡겨져 오늘날까지 이 일가에 속한 후손들이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고 있다.

우스만 본 탈하는 그 때 새로 무슬림이 된 자로 원래는 오랫동안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카아바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던 사람이었다. 예언자 무함마드^{SAW}가 메카를 정복하자 우스만 본 탈하는 어쩔 수 없이 카아바 문의 열쇠를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줌으로서 열쇠를 관리하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 무함마드^{SAW}에게 열쇠의 권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간구하였으며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카아바 문의 열쇠를 관리할 새로운 인물이 누가 될 것인지 궁금해 하며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입에서 나올 말에 집중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SAW}는 카아바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깨부순 후 우스만 본 탈하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늘은 충실하고 경건한 날이다. 이 열쇠를 영원히 잘 관리하도록 하라. 너희들로부터 이 열쇠를 뺏는 자는 오직 약탈자뿐일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위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져 카아바 문의 열쇠는 아직도 바니 샤이바 일가의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 열쇠를 관리하고자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언자 무함마드^{SAW}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약탈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자들이 카아바의 연간 청소와 매년 이루어지는 성지순례 준비를 위해 바니 샤이바 일가에 속한 사람을 불러서 카아바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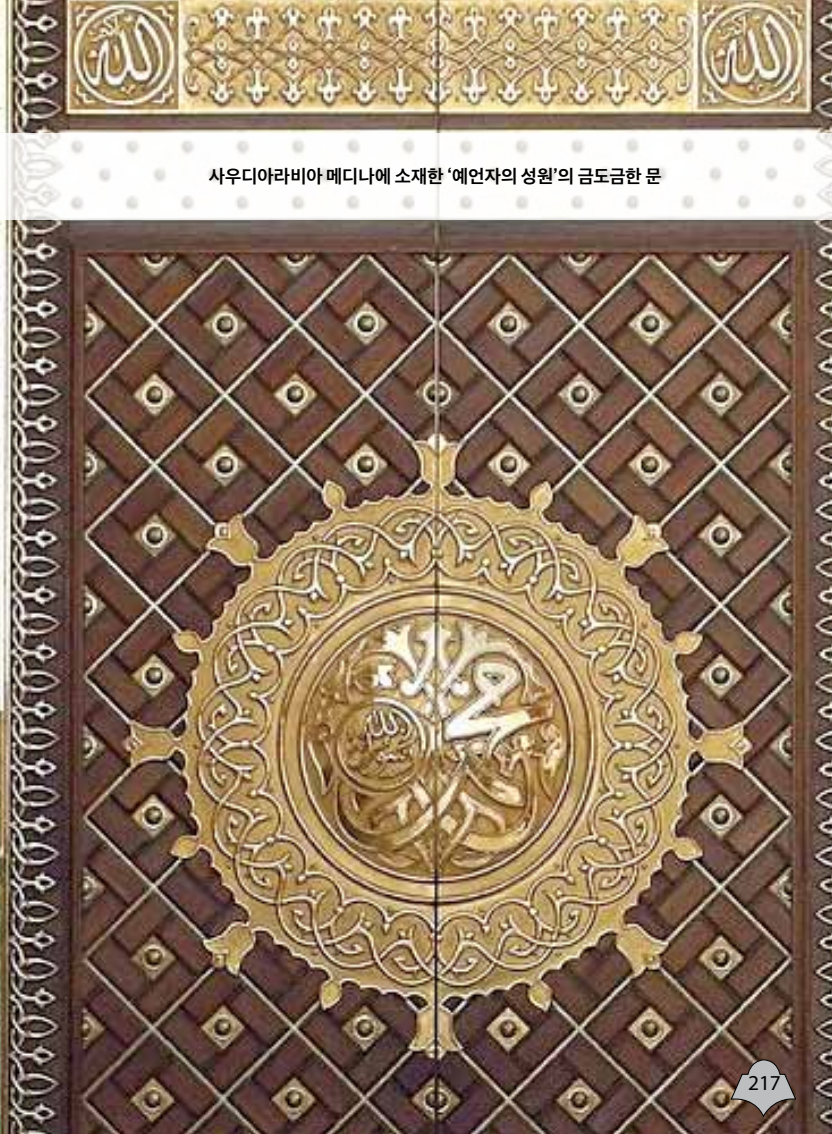
무함마드^{SAW}: 우리 시대를 위한 예언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학자이자 종교 문화 논평가인 영국인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이 쓴 "무함마드: 우리 시대를 위한 예언자 (Muhammad a Prophet for Our Time)"란 책에서 그녀는 "우리가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을 편견 없이 살펴보고 그의 상당한 업적들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무함마드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라비아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의 삶은 탐욕과 부당함 그리고 오만함을 향해 끊임 없이 대항하는 것이었다.

MUHAMMAD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소재한 '예언자의 성원'의 금도금한 문





오만에 소재한 '술탄 카부스 그랜드 성원(Sultan Qaboos Grand Mosque)
사진: 피터 굴드(Peter Gould)



이슬람미술과 서예, 바레인 ▲

디지털 아티스트 피터 굴드(Peter Gould), 호주

호주 시드니 출신의 디자이너이자 디지털 아티스트인 피터 굴드는 현대그래픽디자인, 예술, 사진, 그리고 이슬람의 풍부한 시각적, 영적 전통을 위한 그의 열정을 '아단(<http://peter-gould.com>)'에서 발견했다. 그의 이슬람세계로의 여행과 답사는 이슬람의 고유문화를 세계로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작업들은 많은 전시회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피터 샌더스(Peter Sanders), 영국

1960년대 사진작가 활동을 시작한 영국의 사진작가 피터 샌더스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25만개 이상의 사진을 찍었다. “나무의 그늘 안에서(In the Shade of the Tree)”라는 이름의 첫 사진집은



전 세계 이슬람문화의 다양성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담아냈다. 그는 모로코 정부의 요청으로 모로코의 이슬람 건축들과 주요 성원들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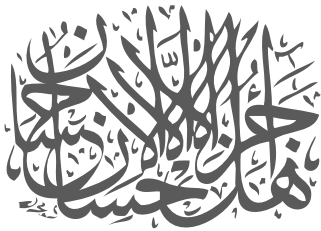


핫산 첼레비(Hassan Celebi), 터키

핫산 첼레비는 전 세계 이슬람서예가들 가운데 손꼽히는 서예가로서 1976년부터 이슬람서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세계 전역에서 온 4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슬람서예자격증’을 수여했다. 그는 전 세계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슬람 장소와 성원들을 위한 독특한 서예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소재한 ‘예언자의 성원’과 ‘구바(Quba) 성원’, 터키 이스탄불에 소재한 ‘블루 모스크(술탄 아흐멧 성원)’, 독일 포르츠하임(Pfortzheim)에 소재한 ‘파티 성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소재한 ‘주므아 성원’, 카자흐스탄에 소재한 ‘알마티 주무아 성원’ 그리고 쿠웨이트에 소재한 이슬람병원 등이다.



무함마드 자카리아(Mohamed Zakariya), 미국
 미국의 이슬람서예 대표자로 잘 알려진 무함마드 자카리아는 19살 때 모로코, 스페인 그리고 영국에서 아랍어와 이슬람서예학을 공부했다. 그는 터키에서 '이슬람서예자격증'을 취득한 최초의 미국인이며 또한 미국 우표 중 "Eid Greetings(이드 무바라크)"우표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그가 특히 주력하는 분야는 전통 아랍과 오스만터키 서예이다.



“신에 대한 보상은 선외에 다른 것이 있겠느냐?” 꾸란 55장 60절

누리아 가르시아 마십(Nuria Garcia Masip), 스페인

스페인 이비사(Ibiza) 출신의 서예가 누리아 가르시아 마십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한 후 모로코에서 이슬람미술을 공부하고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2007년에 '이슬람서예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녀는 현재 미국, 모로코, 터키, 유럽,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동에서 전시회, 대회 및 워크숍에 참가하며 서예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고전이슬람문헌을 미적으로 부활시키는 작업에 몰두중이다.



살바 라솔(Salva Rasool), 인도

1985년에 뭄바이에서 미술공부를 마친 살바 라솔은 아랍어원본과 근현대미술품 간에 균형을 지키며 조화로운 새로운 양식으로 재창조하였다. 그녀는 특히 자신의 서예작업에 테라코타, 도자기, 유리, 가죽과 같은 색다른 재료들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미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가장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분
심판의 날의 주재자이신 (그분께만 찬미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우리는 숭배하였으며
(오직) 당신께만 도움을 청하나이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노여움을 받은 자들의 길이 아니고,
또 방황하는 자들의 길도 아닌,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셨던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꾸란 제1장



위에 언급된 꾸란 장은 무슬림들이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알파티하(개경)장이다.

셀리나 세불라(Celina Cebula), 폴란드

폴란드의 크라쿠프(Cracow)사범대학교에서 장식미술과 미술교육을 전공한 셀리나 세불라는 뛰어난 능력으로 서예와 화법을 결합하여 미술적 시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화려한 바탕의 '하나님의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아랍어 단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느니라.”

핫즈 누르 딘(Haji Noor Deen), 중국

1963년에 중국 산둥성(Shandong Province)에서 태어난 핫즈 누르 딘은 중국어와 아랍어서예를 독특하게 결합시킨 유명한 서예가 중 한 명이다.



위 왼쪽: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위 오른쪽과 아래 둘을 채운 문장들: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壬午年夏
米廣江書



노부카 사가와(Nobuko Sagawa), 일본

가장 유명한 일본서예가 중 한 사람인 노부카 사가와는 아랍어서예의 달인으로 일본에서 미술을 공부하다가 아랍어서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작업은 일본의 가나문자와 한자 그리고 아랍어 글자 간에 조합이 주를 이루는데, 아랍어 “쿠피(Kufi)”체와 “쉴루스(Thuluth)”체에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특별한 서예양식을 나타낸다.



“그리고 내가 그대를 보냄은 단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라.”

꾸란 34장 28절



파리드 알-알리(Farid Al-Ali), 쿠웨이트

쿠웨이트 이슬람미술원의 원장이며 풍부한 디자인과 창의적인 예술의 달인인 파리드 알-알리는 중동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이다. 그는 2005년에 아랍어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500 개의 서예 작품을 만들어 “Muhammadeyat(무함마디얏)”이라는 서예집을 발간했다(아래참고). 500 개의 서예 작품은 11가지 기하학적 제목(정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이 서예집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하학적 무늬를 사용하여 “알라(Allah)”라는 이름을 기초한 다른 서예집도 발간했다.



무함마드 만디(Mohammed Mandi),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무함마드 만디는 독특한 경험과 창조적 디자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여권과 지폐를 위한 아랍어 서예작업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부다비에 소재한 세이크 자이드 그랜드 이슬람성원과 세계의 많은 다른 성원들을 위한 서예작품들을 만들었다.



독립된 글자로 형상화한 '무함마드'라는 아랍어 단어. 조화롭게 디자인한 '무함마드(MUHAMMAD)'라는 아랍어, 영어 글자.



아크마트 소니(Achmat Soni),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이슬람미술재단의 설립자인 아크마트 소니는 아랍어 서예와 아프리카 문화 사이에 조화로운 요소들을 창조해냈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은데벨레(Ndebele) 부족의 토착미술인 은데벨레 미술을 사용했는데 역동적인 색과 기하학적인 무늬가 특징이다.



은데벨레 장식에 아랍어 쿠피체로 쓰인 쿠란 제1장



하나님을 찬미하는 의미를 가진 아랍어 서예 작품. 그 뜻은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통 아라베스크 무늬와 현대식 무늬가 하나가 되었다. 코끼리의 상아처럼 길게 확장된 아랍어.



카타르 '이슬람 미술 박물관(The Museum of Islamic Art)'

2008년 12월 문을 연 이슬람 미술 박물관은 프랑스 루브르 궁전의 앞마당에 유리 피라미드를 디자인한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이오 밉 페이(I.M.Pei)의 작품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유물들은 이슬람 미술 세계의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소재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이슬람성원
이 이슬람성원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에서 첫 번째로, 세계에서 8번째로 크다. 성원전체
가 축구경기장 5배의 크기와 같으며 4만 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82개의 돔과 지상에서 각 107m 높이의 미나렛(첨탑)이 4개 있으며 5627평방미터 크기의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의 카펫이 펼쳐져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샹들리에(높이
15m, 직경 10m)가 있다. 이 이슬람성원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로 꼽힌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소재한 주메이라(Jumeirah) 이슬람성원
두바이에서 현대 이슬람미술을 대표하는 가장 매력적인 이슬람성원 중 하나이다.



바레인, 아흐멧 알 파테(Ahmed Al Fateh) 이슬람성원
1988년 바레인 전 국왕 세이크 이사 빈 살만 알-칼리파(Sheikh Issa bin Salman Al-Khalifa)에 의해 개원된 이 성원은 6,500평방미터 넓이로 7천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갖추었으며 지역특색과 이슬람건축을 혼합한 독특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요르단, 암만에 소재한 후세인왕 이슬람성원
2005년에 개원한 이 성원은 현대 이슬람미술과 서예를 대표하는 암만의 가장 큰 성원 중 하나이다. 4개의 첨탑과 함께 사각형 모양으로 해발 1000m 높이의 산 위에 건축되어 암만시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예멘, 사나에 소재한 알-살레 이슬람성원

2008년에 개원된 예멘에서 가장 큰 성원이다. 22만 4천 평방미터 넓이로 4만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멘의 건축형식으로 지어졌으며 6개의 넓은 미나렛과 15개의 나무문이 있다.



오만에 소재한 술탄 카부스 그랜드 성원

2001년에 개원된 오만에서 가장 큰 성원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수공예 카펫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공예 상들리에가 있다. 41만 6천 평방미터 넓이로 성원마당의 크기만 4만 평방미터이다.





꾸두스(예루살렘)에 소재한 알-아끄사(Al-Aqsa) 성원

알-아끄사 성원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성원이라고 여겨지는데(최초로 세워진 성원은 하람성원(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아바가 있는 성원)) 이 성원은 무슬림들을 위한 최초의 예배방향이었으나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자 예배의 방향은 카아바로 향하게 되었다.

14만4천 평방미터 넓이로 그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장소가 있다. 하나는 '끼블리(Qibli) 성원 (이맘(예배인도자)은 주로 여기서 예배를 인도함)'이며 다른 하나는 '굽밧 앓-사크라(바위의 돔) 성원'이다.

꾸두스(예루살렘)에 소재한 '굽밧 앓-사크라(바위의 돔) 성원'

이 성원은 688-692년에 우마이야왕조 시대의 칼리파 압둘말릭 6세 마르완에 의해 건축되었다. '바위의 돔 성원'이 있는 자리는 예언자 무함마드(ﷺ)가 하늘로 승천했던 곳이라고 여겨진다. 8면체로 된 '굽밧 앓-사크라 성원'의 돔은 황금색이며 직경 29.4m이다.



끼블리 성원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소재한 우마이야 성원

‘우마이야 성원’은 칼리파 우마이야 알 와리드에 의해 706~715년에 건립한 이슬람 성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 중 하나이다. (성원 내부는 약 4000 평방미터이다)

2001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성원을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의 유적지에도 발걸음 하였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교황이 이슬람성원을 방문한 사건이었다. 성원의 남동쪽에 있는 첨탑을 “예수의 첨탑”이라고 부른다. 무슬림들은 종말이 오기 전에 예언자 예수^{as}가 바로 이 첨탑을 통해 내려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라크, 사마라 그레이드 성원

이라크의 사마라라는 도시에 소재한 이 성원은 848~851년에 압바스 왕조 칼리파 알-무타와킬에 의해 건축되었다. 이 성원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원이었다.

사마라의 미나렛은 달팽이처럼 생긴 나선형 구조로 유명한데 현지사람들은 미나렛이라는 일반적인 명칭 대신 “말위야(Malwiya)”라고 부른다.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가는 미나렛의 높이는 52m이고 넓이는 33m이다. 성원에는 17개의 통로가 있으며 벽에는 짙은 파란색 유리로 된 모자이크 장식이 있다. 미나렛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첨탑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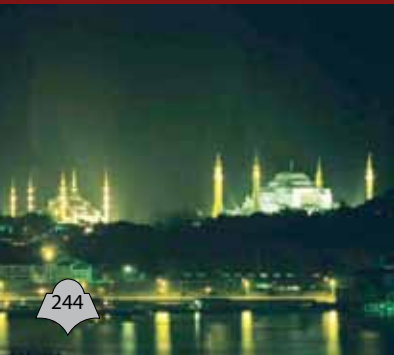
터키, 이스탄불에 소재한 술탄 아흐멧 성원

내부가 파란색과 녹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성원은 오스만터키제국의 술탄 아흐멧 1세가 1609년에 짓기 시작하여 1616년에 완공했다. 6개의 첨탑이 있으며 바닥에서 돔 천장까지의 높이는 43m이다.





터키, 이스탄불에 소재한 아야소피아
 비잔틴 시대 때 성당이었던 아야소피아는 오스만터키제국에 의해 개조되어 500년간 이슬
 람성원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터키의 주요 관광명소다.





인도, 아그라에 소재한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이슬람성원이 아닌 이슬람 건축을 대표하는 모이다. 무굴제국 당시에 황제였던 샤 자한(Shah Jahan, 재위 1592~1666)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22년간의 정성을 쏟아 부어 건축한 무덤이다.

샤 자한은 타지마할 바로 옆에 이슬람성원을 건축했는데 이는 타지마할의 전체 구조에 속한다. 신비롭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타지마할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하나로 꼽히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슬람 문명의 건축양식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무슬림 예술의 보석'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타지마할의 외벽에는 이슬람 성서인 꾸란의 장들과 화려한 꽃무늬들이 새겨져 있다.



▲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자마(Jama) 이슬람성원. 인도에서 가장 큰 성원이며 1656년에 건축되었다.

▼ 인도, 아그라에 소재한 붉은 요새





▲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소재한 파이살(Faisal) 이슬람성원 파키스탄, 라호르 요새 ▼



▲ 방글라데시, 다카에 소재한 스타(Star) 이슬람성원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오번 갈리폴리(Auburn Gallipoli) 이슬람성원 ▼





▲ 싱가포르, 술탄 이슬람성원
 브루나이,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Sultan Omar Ali Saifuddin) 이슬람성원 ▼



▲ 일본, 도쿄에 소재한 터키이슬람성원

태국, 빠따니 중앙성원 ▼





▲ 말레이시아, 쿠알라 트렝가누에 소재한 크리스탈(Crystal) 이슬람성원
성원은 주로 유리로 만들어졌으며 완만(Wan Man) 섬에 위치한 이슬람유산공원에 있다. 2008년에
개원되었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Putrajaya) 이슬람성원 ▼



▲ 말레이시아, 콰탄(Kuantan) 이슬람성원
말레이시아, 피락 주에 소재한 우부디아(Ubudiah) 이슬람성원 ▼





이집트, 카이로에 소재한 알-아즈하르 이슬람성원

971년에 세워진 알-아즈하르 이슬람성원은 성원과 대학을 모두 갖춘 종교시설이다.
988년에 설립된 알-아즈하르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이다.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아흐멧 이븐 툴룬 이슬람성원

아흐멧 이븐 툴룬이 879년에 세운 이 성원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원들 중 하나이다(2만6천318평방미터 넓이). 벽돌로 만들어진 이 성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높이가 40m에 달하는 첨탑이다. 사각형의 건물 위에 세워졌으며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나선형으로 건축된 특이한 구조이다.



스페인, 코르도바 메스키타
 스페인어로 메스키타(Mezquita)는 '이슬람성원'을 뜻한다. 이 성원은 8세기에 코르도바의 통치자 압둘 라흐만 2세(재위 822~852)에 의해 세워졌으나 현재는 성당(코르도바 산타마리아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페인, 카라트 알함브라 요새

“붉은 요새”라고도 불리는 이 곳은 그라나다의 무슬림 통치자(재위 1353-1391)의 명령으로 궁전과 요새의 복합 형태로 건축되었다. 현재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이슬람건축명소로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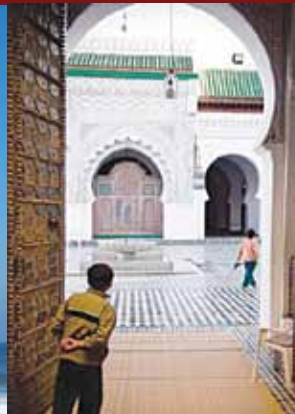
주: 1492년 기독교 세력이 스페인을 지배하면서 1527년 신성로마제국의 카를로스 5세는 알함브라에 카를로스 5세 궁전을 세웠다.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소재한 핫산 2세 이슬람성원

프랑스 건축가 미셸 핑소(Michel Pinseau)가 디자인하여 1993년에 세워진 이 성원의 미나렛은 210m로 모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미나렛에는 레이저 불빛이 있어 메카방향으로 쏘아져 나가기 되어 있으며 25,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모로코, 페스에 소재한 카라우인(Kairouine) 이슬람성원과 대학교
 카라우인은 987년에 설립되어 (카사블랑카에 소재한 핫산 2세 이슬람성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이슬람성원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이다.





▲ 투르크메니스탄 아쉬가바드에 소재한 킵착(Kipchak) 이슬람성원
 투르크메니스탄 아쉬가바드에 소재한 아자디(Azadi) 이슬람성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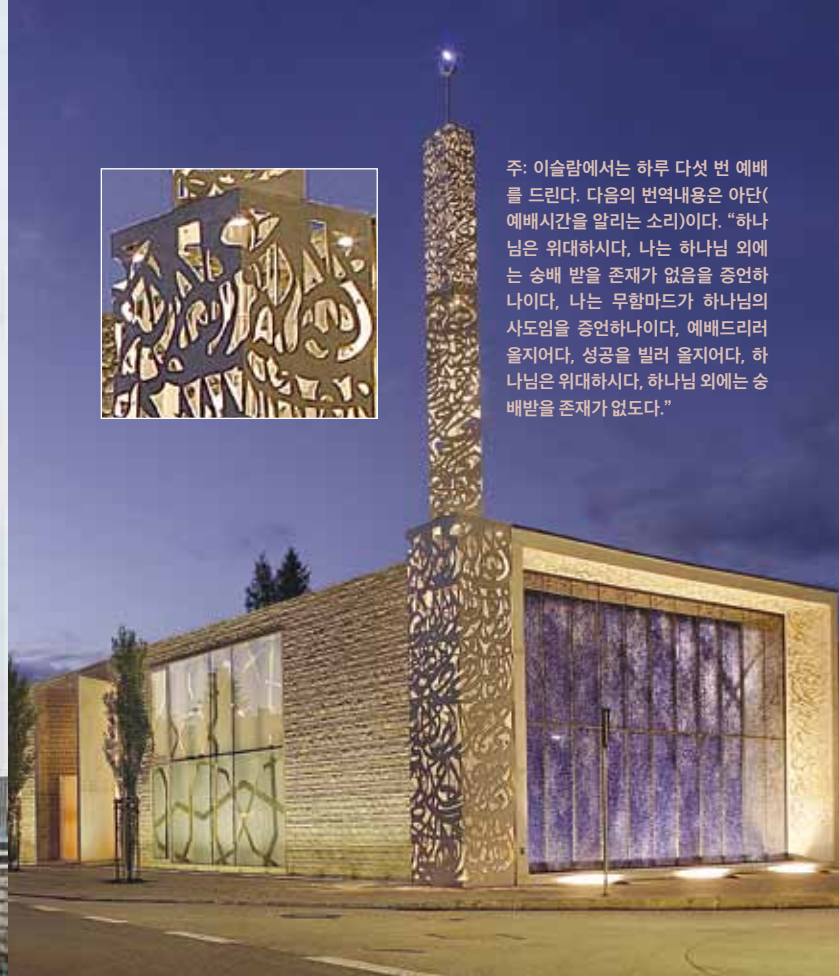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소재한 쉬르 도르(Shir Dor) 마드라사(학교)
 우즈베키스탄, 부카라에 소재한 칼론(Kalon) 이슬람성원 ▼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그랜드 이슬람성원
프랑스에 있는 가장 큰 성원이며 제1차 세계 대전 후 1926년 7월 15일 개원하였다.



주: 이슬람에서는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린다. 다음의 번역내용은 아단(예배시간을 알리는 소리)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숭배 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하나다, 나는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하나다, 예배드리러 올지어다, 성공을 빌러 올지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외에는 숭배받을 존재가 없도다.”

독일, 펜츠베르크(Penzberg) 이슬람성원
이 성원의 미나렛에는 하루 다섯 번 부르는 아단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 아랍어 서예는 아랍 에미리트 출신 서예가 무함마드 만디(Mohammed Mandi)에 의해 제작되었다.



한국, 서울중앙성원



▲ 인도네시아, 세마랑에 소재한 그랜드 이슬람성원

▼ 중국, 닙샤에 소재한 후이 이슬람성원





▲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보캅(Bokaap)에 소재한 아우왈(Auwal) 이슬람성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794년에 최초로 설립된 이슬람성원이다.



▲ 부르키나파소, 보보디우라소에 소재한 그랜드 이슬람성원
말리에 소재한 젠네(Djenne) 이슬람성원 ▼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게이츠빌에
소재한 꾸두스 이슬람성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미드랜스에 소재한 나자미야
(Nizamiya) 이슬람성원



말리공화국의 젠네에 위치하고 있는 젠네 성원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진흙 건축물이다.
젠네 성원은 1280년경 세워졌지만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그때의 모습이 아니다. 19세기 모래 바람 속에
쓰러진 것을 1907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1988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서 비로
소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됐다. 1년에 두 번 젠네 거주자들이 직접 바니강에서 진흙을 손수레로 실어 날라
성원 벽을 복구한다.

참고문헌

Abdul Ghani, M. Ilyas, (2003). The History of Al-Madinah Al-Munawwarah, Rasheed Publishing, KSA.

Adair, John, (2010). The Leadership of Muhammad, Kogan Page, UK.

Ahmad, Mumtaz, (1996). Islam and Democracy: The Emerging Consensus; Middle East Affairs Journal.

Al-Maghluth, Sami, (2008). The Historical Atlas for Prophet Muhammad Life, Obaikan, KSA.

Al-Mutawa, Jassem, (2001). The Wives of the Prophet in Contemporary Time, Dar Al Hikma, Kuwait.

Al-Mubarakpuri, Safi-ur-Rahman, (1996). The Sealed Nectar: Biography of the Noble Prophet Muhammad, Darussalam, KSA.

Al-Zayed, Samirah, (1995). The Inclusive Book About Prophet Muhammad's Life, The Scientific Press, First Edition, Syria.

Armstrong, Karen, (2002). Islam: A Short History, Harper Collins, New York, USA.

Armstrong, Karen, (1992). Muhammad: A Biography of the Prophet, Harper Collins, New York, USA.

Armstrong, Karen, (2007). Muhammad: A Prophet for Our Time, Harper Collins, New York, USA.

Al-Nawawi, Y.S., (2003). Riyadh Al-Saliheen. Authentic Sayings of Prophet Muhammad, Arabic Cover –Cairo, Egypt.

As-Sallaabee, Ali Muhammad, (2008). The Noble life of the Prophet, Darussalam, KSA.

Bukhari, Mohammad Bin Ismael, (1997). Saheeh Bukhari, Dar Al Afkar, Amman, Jordan.

Hammad, Ahmad Zaki (2007). The Gracious Qur'an: A Modern-Phrased Interpretation in English, Lucent Interpretations, IL, USA.

Hart, Michael, (1992). The 100: A Ranking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s in History, Carol Publishing Group. N.J., USA.

Islam, Yusuf, (1995). The Life of the Last Prophet, Darussalam, KSA.

Khalidi, Tarif (2009). Images of Muhammad: Narratives of the Prophet in Islam Across the Centuries, Kindle Edition.

Khan, M. Muhsin, (1985). Sahih Muslim –English Translation, 4th Ed, Beirut, Lebanon.

Montgomery Watt, W.(1974). Muhammad: Prophet and Statesman, Kindle Edition.

Pickthall, Marmaduke (2006). The Qur'an Translated: Message for Humanity – 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Support of the Final Prophet, Washington, USA.

Ramadan, Tariq, (2009). In the Footsteps of the Prophet: Lessons from the Life of Muhammad, Oxford University Press, UK.

Saheeh Int. (2004). The Qur'an English Meanings, Abul-Qassim Publishing –Al Muntada Al-Islami-Jeddah, KSA.

Sultan Sohaib N., Ali, Yusuf Ali, and Smith, Jane I. (2007). The Qur'an and Sayings of Prophet Muhammad: Selections Annotated & Explained, Skylight Paths Publishing, USA.

Wolfe, Michael & Kronemer, Alex (2002). Muhammad: Legacy of a Prophet (DVD - Dec 18, 2002).

NOTES

